朝鮮日報
夕刊 九日(火)
本紙夕刊十二面

豫算案修正立成
九日閣議에附議
各相에提示하야政治的折衝
不進步時는停會期間再延長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再開議會에提出할 十二年度豫算修正案에對하야 可及的 再停會를避하려하는 政府의 方針에 基하야連日省議를열고 成案을急히하여왓는데 八日에도 午後十一時半까지 藏相官邸에서 省議를開催하고 主計局原案을 中心으로協議를 거듭한結果 겨우一般會計歲出豫算에 關한 修正原案이作成되엿슴으로 卽時計數整理를行한後 九日閣議에提出하야 다시 閣議後各省事務當局을 招致하고 大藏省의 方針을 說明하야 諒解를엇기로되엿다 그리고修正原案에對하여는

一、直接物資의 需要를 招致할豫算額과 如한것은 可及的節約又는 延期할것
一、政府의 海外拂을 增加할豫算은 可及的 節約할것
一、政府機關其他各種機關의擴充에伴하는 人件費와 如한것은可及的節減延期할것
一、各省의 예누리로 多額이承認되엿다고 認定하는 經費는節減할것

等方針에基하야 各項目別로 檢討削減又는 延期로 修正을 施한것으로 九日 閣議에서 結城藏相으로부터 明年度豫算案을 各省大臣에게 提出하야 大臣間의政治的折衝에依하야 速히 解決을어더 될수잇스면 翌十日閣議에서 決定할方針인바 萬一右政治的折衝이 順調로 進捗되지못할境遇에는 停會期間의 再延長이 이러날것이다

從五位 池田成彬
日本銀行總裁被仰付
從五位勳二等 深井英五
依願日本銀行總裁被免

中村陸相 當分間病院서靜養

【東京電話同盟】感氣로因하야七日牛込軍醫學校附屬病院에 入院한 中村陸相은 八日은 病勢도무쭐고 閣議에出席할려이엿섯든바 아직 解熱되지안헛음으로 側近者로부터 靜養을懇請한結果 當分間病院에서 靜養하게되엿다

池田氏總裁受諾으로
藏省과聯携期待
厖大豫算에依한磨擦緩和乎

【東京電話同盟】池田成彬氏는昨年五月辭任을 引退한後 最近數年間으로 出馬를期하게되엿스나 結局 非常時財政을 집지고나선 同鄕의 後輩結城藏相의 熱情에 應하야 日銀總裁를 受諾하게된것이라고 觀測되며 則深井前總裁는 歷代總裁中의 逸材라고稱하는만큼 同氏以後에 뒤지지안는 人物을必要함으로 池田氏外 再出馬가 懸望된것이다 그리고 結城藏相과 池田氏는從來同鄕關係以外에 特殊關係도잇고 池田氏가 就任할時에는從來圓滿을 缺하여잇든 大藏省對日銀間의 聯携는 密接하게되여 厖大豫算이 齎來할모든 磨擦을 最少限度로 緩和할려로 還貨、金融、公債政策等에 完璧을 期하게되리라고 期待된다

池田成彬氏 日銀總裁發令

【東京電話同盟】日銀總裁就任交涉을 바든 池田成彬氏는 九日午前九時結城藏相에 對하야 正式으로受諾回答을하엿다 이에依하야 結城藏相은 同日閣議에 報告하고 諒解를어더 上奏御裁可後 左와如히 發令되엿다

中央軍、平和裡에
西安을奪回入城
楊虎城麾下軍隊中央에歸順
顧氏、行營設置에着手

【上海八日發同盟】中央軍의先鋒部隊 宋希濂部隊는 八日午前八時 마침내 西安에入城하엿다 이에앞서 楊虎城氏는 西安으로부터 三原에赴하고 西安城內에駐集하든 麾下部下는 中央軍에歸順하야 西安은 平和裡에 完全히 中央에回收되엿다 七日夜潼關으로부터 臨潼에到着한 西安行營主任顧祝同氏는 中央軍의西安入城으로 卽日西安에 入하야 西安行營設置에 着手할려이다

西安問題에關하야 一月中旬以來 蔣介石氏及 中央은終始寬大한態度로서 政治的解決을企圖한結果 二月二日부터 張楊部隊는 移動을開始하고 이에伴하야 中央軍은 四日潼關을追進하야 八日西安에 入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張楊部隊의 中央服從으로 西安問題는 一段落을告하엿다 今後 兩部隊는甘肅及西安蘭州公路一帶에 駐屯하고 共同으로 國家를爲하야努力할려이다

西安問題解決을 何應欽氏報告

【南京八日發同盟】八日中央黨部記念週에서 軍政部長何應欽氏는西安問題解決에對하야 左와如히報告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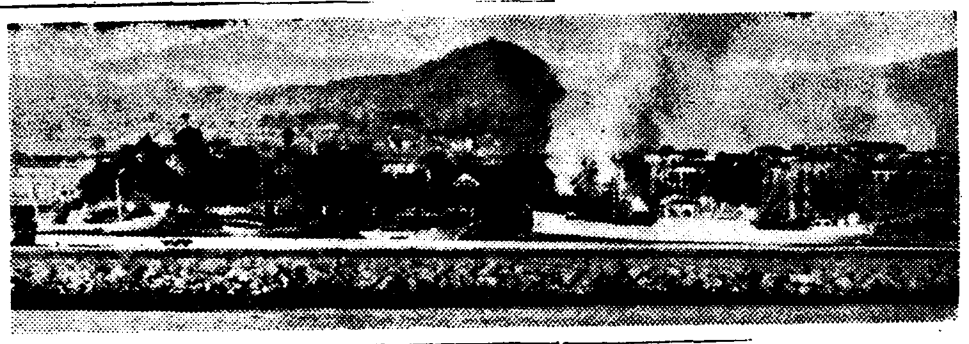
共産軍問題는
依然未解決狀態

【上海八日發同盟】中央軍宋希濂及 陳安保兩部隊는 八日午前 西安에入城함으로서 法月 中央側이 西安善後處置로서 陝甘善後辦法을 發表한以來 一個月만에 西安은 中央의손에도라가고 몃번이나 決裂에瀕하든 和平交涉은 겨우奏効되야 時局不安은一段落되엿다 그러나 西北地方의赤化問題는 依然나머잇서 陝西北部에 蟠居하는 共産軍에對하야 中央今後의態度如何로는 아즉도 重大波瀾이 豫想된다 楊虎城、張學良 兩部隊는 이미全部隊方面에 撤退하고 今後繼續하야 中央側과 善後折衝을行키로되엿는데 西安側의 政治的主張에 對하야는 三中全會에서 討議키로 諒解가 成立된 模樣으로 當面의 問題로서는眞實의 支那問題가折衝의中心이될듯하다

日本의膨脹政策에
中國의抵抗强化
重大한冒險을行치안는限蘇聯攻擊은不能
米外交協會、極東의情勢發表

【華盛頓八日發同盟】米國外交協會는 八日極東情勢에對하야 左와如한 重大意見을 發表하엿다 米國은 漸次不景氣로부터 脫出하야 再次極東政局에 影響을 與할地位에 서게되엿다 海軍省은 最近行動 半徑의 큰 艦隊補給船을 製作하고 大型主力艦建造를 計畫하고 더욱 하와이 眞珠灣에 新浮船渠施設을計畫하고잇다 그리고 米國政府는 太平洋防備制限에 對한 華府條約 第十九條의 存續에 그리好意를 表明하지안는다 以上의 事實에 徵하면 米國海軍省當局은 長距離海軍作戰을 考慮하는것이라고 보아도 無妨할것이다 그리고 日本의 膨脹政策에 福한 中國의抵抗은 漸次强化하게되고 蘇聯邦의國防力도 實로놀날만한程度로 充實하게되엿다 따라 日本은 重大한危險을冒하지안는限 蘇聯을攻擊할수는업다 此等諸要因은 日本國民도決코 看過할수업고 國民은軍部의計畫이 果然實明한지 엇전지 疑問視하고잇다 一九二一年華府會議를 成功케한 諸事情

叛軍말라가占據
赤色軍과激烈한白兵戰을演出한後에
先鋒部隊、市內에進入



【살랑망카八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四日來 陸海空三軍을 總動員하야 西班牙南部의 要衝말라가港의 總攻擊을 敢行하엿는데 八日午前九時三十分에 이르러 先鋒部隊는 드듸어 市內에進入을 開始하고 頑强히 抵抗하는 赤色政府軍과의 間에 激烈한 白兵戰을 演出한後 正午前後 完全히 全市를 占據하엿다 人民戰線部隊는 海岸에 沿하야 東方 알메리아港에 向하야 潰走하얏는데 말라가、알메리아間道路는 到處에 火災를 이르키고 火焰은 沖天하야 凄慘한 光景을나타내고잇다 一方叛軍艦隊는 陸上部隊와 呼應하야 알메리아港에드리가고 人民戰線派領袖가搭乘하고잇는 汽船을 追跡하야 拿捕하얏다 叛軍의入城同時에市內는 各戶에叛軍政權의 國旗를揭揚하고 直時叛軍化하엿다 叛軍에게捕虜가된赤色軍은千二百名이라한다 (寫眞은 말라가市)

英外相代理에게
獨大使會見要請
植民地再分配問題를提示코
佛蘇協定廢棄主張乎

【倫敦九日發同盟】獨逸大使리벤트로프氏는 八日 英國外務省에 對하야 外相代理 할리팍스卿에게 會見을 申請하엿다 할리팍스卿도 右申請을 受諾하고 十一日前後에 會見하기로되엿다 獨逸大使는 右會見에잇서 如何한程度까지 植民地要求를 提出할는지 問題視되여잇다 當初 大使는 植民地要求를 原則的으로 承認하기를 主張할意向이라고傳하는데 其後英國政府는 載冠式前까지 一切積極的處置를 保留하리라는것이 判明되엿슴으로 大使는 히틀러總統의外交演說『獨逸○○』에서 植民地要求를 提唱하는데 그치리라고 觀測된다 그런데 經濟政策에 對하야는 四個年計畫의 主張을 說明하야 獨逸政府가 自足孤立政策을 遂行치안흘것을 述하고 더욱 로카르노體制에關하여도 佛蘇兩國의相互援助條約案 廢棄를 主張하는同時에 도나우、로카르노兩條約案東歐條約案의 必要를 强調하리라고 觀測된다

警保局長에
大村地方局長起用

【東京電話同盟】河原田內相은九日이上京한 篠原英太郎氏와 內相官邸에서會見하고 警保局長警視總監等의人事銓衡에關하야協議한結果 警保局長에는現內務省地方局長大村淸一氏를 起用하기로 兩者의意見이 一致되엿슴으로 十日閣議에서 左와如히 正式決定發令할려이다

地方局長 大村淸一
任警保局長(一等)

그리고 警視總監의 後任에關하여는 河原田內相으로부터 現東京府知事橫山助成氏를 推薦한데 對하야 篠原氏와의間에 아직 完全히 意見一致가되지못하엿다

軍都化한海蔘威
歡樂境全部禁止
日本人壓迫依然繼續

海蔘威에잇서 蘇聯政府의 日本人壓迫問題는 外交交涉으로 移하야 莫斯科에서 兩當局間에折衝이繼續되고잇는데 其後海蔘威에는 北日本汽船사이베리아丸朝鮮郵船金剛山丸 長壽山丸의 三船이서로 前後하야 入港하엿다가 無事出港하엿스나 日本人에 對한 不法壓迫은 依然繼續하다 最近某所에達한 情報에依하면 海蔘威에잇서 壓迫狀況은 左와如하다

船舶의 出入狀況은 아직自由이나 海蔘威港近海四運地點에 잇는 스크리프레프島에서 停船을命하고 水先案內를 태우고온 게·페·우의 監視가달리채로 堅까지 入港하는데 檢疫을맛는것은 當然하다할지라도 無理하게船員을一人式 嚴重한取調를하고잇다 上陸은 原則上 自由로되여잇스나 自發的으로 上陸을抑制케하고 上陸하드라도 게·페·우의嚴重한監視下에 것게된다 그러나 實際上 旅行을 要하는일과 日本貨幣의 ○○를 事實上嚴調를지못하고 上陸하는일도 制限되고 市中의 通行人은 全部軍人이라고해도 過言이 아닐만치 軍國化한空氣에 싸여잇고 料理店、酒店 其他의 歡樂境은 全部 禁止되여잇다 오직 밤거리의 女子는 依然히 醜業을 行하고잇스나 日本人과 接觸하면 게·페·우에게 스파이로 拘束될念慮가잇슴으로 아모도日本人을相待하는사람이업다 唯一한日本漁業會社의 代理店인商館組에는 目下三人의 代表社員이 駐在하고잇스나 其中二人은每日取調를맛고 남어지 一人이 事務를 辛苦히 處理하는狀態인데 別로 商館組의營業을 認定치안는態度는 取하지안는다 저편에서오는積荷는우랄産의石綿과 海產物(昆布干海參)이다

津島壽一氏를
日銀副總裁로起用

【東京電話同盟】日本銀行副總裁淸水賢一郎氏는 深井總裁에殉하야 辭表를 提出하엿슴으로 結城藏相은 池田新總裁와 協議한後 元大藏次官 津島壽一氏를 起用키로 決定하엿다

協調會常務理事
町田辰次郎氏昇任

【東京電話同盟】協調會常務理事河原稻吉氏의 內相就任에伴한後任에關하야 協調會에서는 八日午後二時부터 理事會를열고 協議한結果 滿場一致로 常務理事에 現同會總務部長町田辰次郎氏를推薦하기로決定하고 同時에四名의參與理事를 두기로하고 貴族院議員松岡均平男、塚本淸治、田澤義鋪、社會局勞働部長赤松小寅의四氏로 決定하엿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九日午前十時半부터 第三會議室에서開催하고 各局長으로부터大要左의事項에 對하야 各其報告가 잇슨다음 最後에 南總督으로부터 西鮮三道의 觀察感想을 述하고 總督府에서 海外에 派遣하는者에게는 確實한 研究題目을 指示하야 具體的報告를 徵하게하기바란다고注意를述하고 午後零時半에散會하엿는데 各局長의 報告內容은左와如하다

◀相川外事課長=滿洲에잇서 五安全農村의 水田은 八千二百四十一町步 農家戶數 三千二百三十一戶를算하고 더욱 鮮滿拓殖에서 將來八年乃至十五年間에 自作農資金을貸付하고 年賦償還을 開始할

◀大竹內務局長=南鮮地方視察狀況報告로
一、馬山의酒米는 아직內地米를 使用하는者가잇스나 將來에는 全部鮮米로하기바란다
一、每年出水로 冠水地帶에 森林을 栽培하야 成功하는데 森林은 現在日本內地에서 移入을 仰하는狀態임으로 右森林栽培를奬勵하기바란다

◀三橋警務局長=來月中에 麻藥物取締刑事警察事務及高等警察事務에關하야 協議會를開催할豫定이다

◀富永學務局長=今月廿六、七兩日朝鮮內卅一本山의 僧侶會同을開催하고 心田開發에關하야 協議하기로되엿다

◀大橋忠一氏(滿洲國外交部次長) 渡東途中 九日午後二時卅三分著 노조미로入城 午後六時부터 倭城臺官邸에서열리는 南總督招待의晩餐會에臨하고 朝鮮호텔에一泊後 明九日 總督府外事課와 鮮滿一如의外交關係事項에對하야 協議한後 午後二時四十分發渡東

專任遞相
貴院方面에서詮考

【東京電話同盟】林首相兼攝五閣僚中山崎農相이兼攝하고잇는 遞相의 後任을急히決定하기爲하야 滿洲國參議田邊治通氏에게 交涉하고잇든바 今回同氏로부터 拒絶回答을 接하엿슴으로第二候補者로 貴族院方面에서 詮考하야 議會停會中에 決定하리라고 觀測된다

日本銀行總裁
深井氏勇退發令

【東京電話同盟】深井日銀總裁는 勅選議會로 勇退를 決意하고 去月二十三日 辭表를 提出中이든바 八日附로써 如左히 發令하엿다

日本銀行總裁
依願日本銀行總裁被免 深井英五

人事·集會

◀具滋玉氏(中央基督靑年會總務) 十日午後三時二十八分京城驛着列車로歸京豫定
◀李鍾鼎氏(間島新報延吉支社長) 入京中 人事次九日來社
◀閔興鉉氏(共生藥業株式會社社長)會社創立及新任人事次 本事來訪
◀崔蘭植氏(同社常務取締役)上同

八面鋒

◇ 京城府內의 習校入學難을緩和키爲하야 二部特別經濟戶別稅를 二割가량올려보자고。

◇ 二割을올려서 緩和가된다면 子弟를爲한일이니 負擔을自願하는것도無妨。

◇ 그러나 애초에 納稅能力이 업는사람의子弟은 亦是가르칠 길이업다하면 딱한노릇。

◇ 義務敎育問題는 우선여하두고 大京城의體面을爲하야 京城府에서만이라도 自治的方法이 업슬가。

◇ 校舍新築과 學級增設이 經費上困難하다하면 晝夜二部制의 一律的實施도한方法。

◇ 敎員의疲勞도考慮할問題이나 若干의增俸과 臨時手當支給으로도 될듯한일。

◇ 그리하야 晝夜學을 全然同格으로 認定한다하면 貧寒한兒童을爲하야는 얼마나幸福일가。

京城府三淸町 三花園住宅地讓渡圖

總坪數 九千一百七十坪
其內 旣處分地 三千七百七十坪
現在地 五千四百坪
右現在地五千四百坪中 五百四十坪은道路敷地로無償提供하고 其餘坪數를坪三十五圓式計算하야讓渡함

京城府三淸町三五의三
鄭 熙 燮
(電光一一九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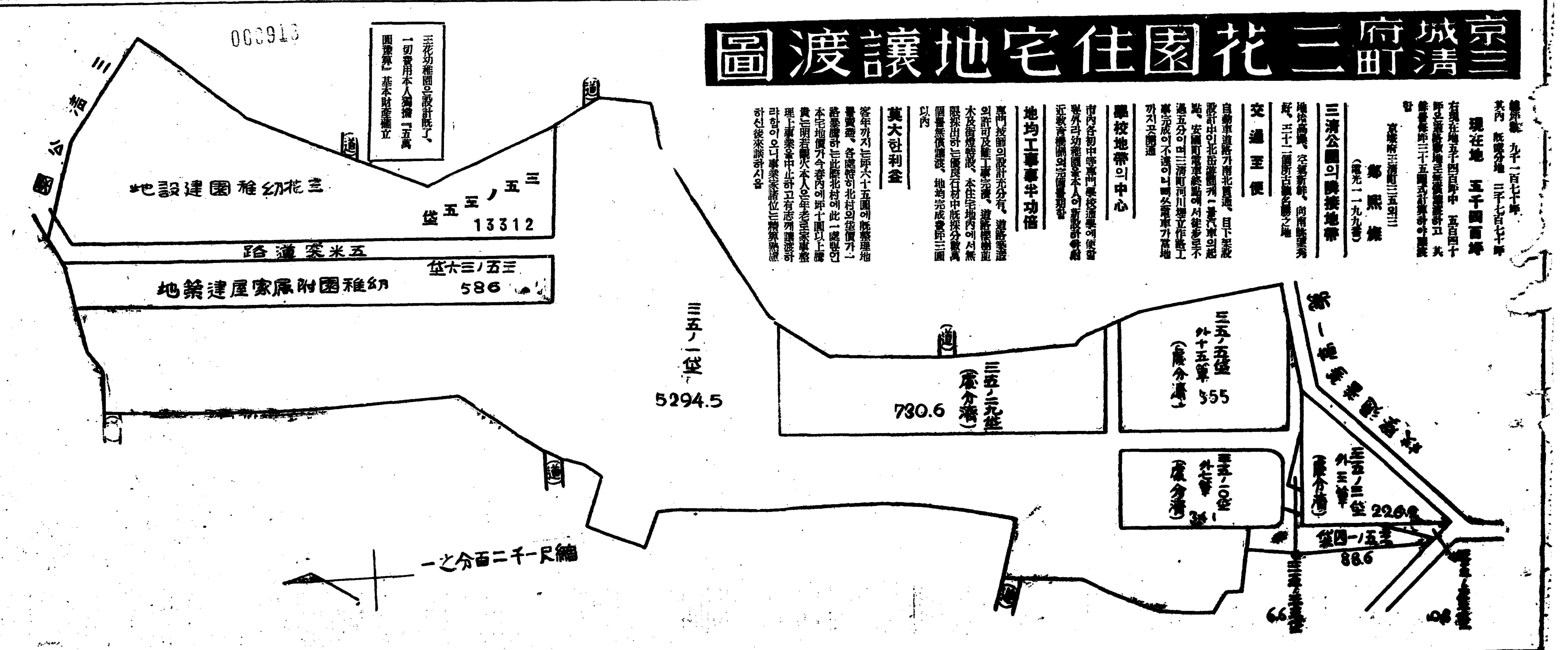
三淸公園의隣接地帶
地形高爽、空氣新鮮、向南眺望秀好、三十二個新古韻名勝之地

交通至便
自動車道路가南北貫通、目下架設設計中인北岳旅館前에는乘汽車의起點、安國町電車終點에서 徒步로不過五分이며 三淸町河川埋立作路工事完成이不遠이니 貨物自動車가 宅地까지곳開通

學校地帶의中心
市內各初中等專門學校通學에便宜할뿐外라 幼稚園은本人이新設計中이며 近距에敎育機關의完備를期함

地均工事事半功倍
專門技師의設計充分有、道路築造의許可及竣工事完了、道路側面木及街燈特設、本住宅地內에서無限採出하는優良石材中既採分數萬個를無償讓渡、地均完成費坪三圓以內

莫大한利益
客年까지는坪六十五圓에旣整理地를賣出、各處特히北村의坪價가漸次暴騰하는此際 北村에此一處뿐인本宅地價가今春內에坪十圓以上騰貴는明若觀火 本人은年老로家事整理上事業을中止하고有志께讓渡하라함이오니 事業家諸位는精算熟慮하신後來議하시옵



廢校의悲運붓들자고 『崇專學生』禁食祈禱

學生會決議로 九日부터實行 校當局엔哀願書提出

【平壤支局電話】 구일오전십일시 평양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 학생회에서는 동교내에서 학생대회를 열고 학교운명에 대하야 협의한결과 결국은 선교회의 방침대로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치안케되는것은 확실하니 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것은 폐교의전제인데 이시에 신입생 모집안는 그날부터·학교의운명은사실상폐교나 거이달음없는결과에 및치게될터인가잇지안느냐 우선학교당국에서는 방도로는 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케하는수바게업는것이다 라는결론에 도달하야 아래와가튼 애원서를결의하야 숭전학교장과 선교회 학교처리실행위원장소윤도(蘇約道)씨와 평양선교회에 발송하는동시에 원만한회답이오기까지 전학생들은 학교에모이어 절식(絶食)한태도로 금식기도를 계속하기로되엿다

哀願書

閉校는 旣定事實이라하엿고 따라서 新入生募集을 中止케되엿다는말슴은 學校當局으로부터 들엇습니다 그러나 閉校한다는것과 宣敎會에서 敎育事業에서 引退한다는것은性質上 判異하지 안슴니까 閉校하지안코라도 引退할수잇지 안슴니까 朝鮮人側에 引繼하려고 한동안 努力하신것도 이때문인가합니다 朝鮮人에게 經營權讓渡外에 他途가 업다고 생각하옵신 그眞意와 苦衷이 지금겨우 諒解한 우리들로도 알만하옵니다 손을 떼이더라도 그길로뜻이 學校를 살려주마 하시든 그뜻이 참으로지금도 잇사오면 適當한 後繼經營者에게 引繼交涉을 速히 하여내서 速히新入生募集하도록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校舍를 놉히들고 지도하며 잇스렴니다 우리들은 母校가 죽는것을 가만히 안자서 바라만볼수업는 까닭입니다

러한정에 불시착륙을 하다가 기체는 대파하엿스나 탑승자는 무사하엿다한다

老母께꾸중듯고 自殺한孝子

【龍川】 알코리는 노름판에 출아다니지말라고 자모(慈母)의간곡한충고가 듯기실혀서 자살한 청년이잇다 황해도평산군보산면 남천리(平山郡寶山面南川里)노동자김순식(金淳植)(二三)은 지난칠일오전한시경에 자기집 부엌에다가 목을매여죽엇다 전기 김순식은 전라도태생으로 그는어렷슬때 약산변전에 살길을차저서 전기주소로 부모와 상인이 이주한지 얼마아니되여 전기자살자의아버지는 행방불명이되고 모자겨우 목숨만을이여 눈물겨운 생활을해오든중 근변은전기김순식이가 노동시장에 몸을던저생활에 그다지 큰고통이업섯다고한다 그런데 요새, 연일 압록리는 노름판에 다녀 적지안흔 손실을 봄으로 전기 자살자의모친이 노름판에 가지말라고 지난오일저녁에 충고하고 봉룡모씨의 구신변요정 음식준비하는대가서 도와주고 세로한시경에 돌아오니 아들은 벌서이세상인간은 아니엿다고한다

京畿道沿岸 干潟地에養漁區

道産業課財源捻出策

경기도 산업과에서는 종래경기도부천(富川)강화(江華)옹진군에만 배치하여면 수산(水産)다림의 사업기수를 신이별도부터는 개풍(開豊)김포(金浦)수원(水原)진위(振威)의 각군연안지에도이를 배치하야 경기도 연안의간석지(干潟地)사만정보에 대하야 패류(貝類)해조류(海藻類)의 적종양식(適當養殖)을 시험 하야장래 일대재원으로 할터이라고한다 그리고 일정한 지구를한정하야 금어구(禁漁區)로하야간시원(養殖員)을 두어서 치패(稚貝)를 남채하는것을 취체할터이라고한다

非常時에適合토록 土地收用令改正

現行法令은範圍가좁아事業上大支障 土木課에서草案作成

현재 조선에서 시행하야오는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은 최근 약진조선의 팽창한토목기타사업을 진행함에 범위가 너무좁음 뿐아니라 무렵하야 여러가지 지장과 불편이만흠으로 총독부에서는 조선토지수용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방금내무국토목과 판본사무관(坂本事務官)의손에서 개정안을 작성중인데 초안작성이 끗나는대로 곳심의실(審議室)을 거처서 법제국(法制局)으로 돌릴터인데 현재시행되어잇는 토지수용령은 전문구조로 그중일반에 제일관계가깁흔 제이조를적어보면

一、國防其他軍事에關한事業
二、神社神祠又는官公署建築에關한事業
三、社會事業又는教育、學藝에關한事業
四、鐵道索道 自動車專用道路、軌道 道路 橋梁 河川 堤防、砂防、運河、溜池、港灣 埠頭、水道、下水市場、電氣、瓦斯、火葬場等에 關한事業
五、衛生、測候、航路標識、水害豫防 其他公用의目的으로써 國又는公共團體에서施設하는事業
六、同一場所에 一年三萬五千噸以上의 製鐵能力이有한製鐵事業

以上의여섯항목이 현재조선에서 적용하는 토지수용령의 범위인데 이범위를 확신확대히 하며 내용을강화케할터이다 그내용의대개인즉

火藥製造事業、油脂製造事業、石油製造事業、肥料製造事業、紡績工業、輕金屬에 關한事業

이상의 여러가지를 더증가하야 비상시군수공업에 적합하도록할터이다

이법령은 명치사십사년(明治四十四年)에 제령제삼호로 발포한것으로 대정칠년(大正七年)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소화팔년(昭和八年)전후세번이나 개정한것인데 최근비상시국의 국책적으로 성행하는 각종공업기타를 더증가하야 범위를확대하며 내용을 강화하면 토지소유자로고 법령에 걸리지아니할사람이 업슬것이다

坂本事務官談 현재시행하는토지수용령을 그대로 가지고는 팽창한 조선 토목기타사업수행에 비상한 지연을면치못하게됨으로 개정하기로 하얏다 근래토지소유자의 소유권존중관념이 너무 놉흔까닭으로 여러가지폐단이 만타 자기를 떠나서 좀더대국적으로생각한다면 쌍방이 조화가 어려지안흘것이다 그리고 현재토지수용령의 범위는 너무 좁은것으로 지금시대에 적합하지못한것이다

折衷主義는抛棄 收用令適用處決

土地買收에當局의態度一變 企業者에게는大打擊

사업이천만원이란 대예산으로 신년도부터는 각지에 토목사업기타여러가지 시설적공사가광장히버러질모양인데 이와가티 각종의사업을수행함에는 막대한토지가업스면안되는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시세이외의가격을 말한다하야 쌍방의분규를 거듭하게되는데 총독부에서는 종래와가티 토지소유자와가격에대한것을 절충주의로만나가다가는 허다한 사업진행에 비상한지장을면키어려운형편이록 금년부터는 총독부기타당국에서 요구하는가격에 응하지아니하면 단연 토지수용령(土地收容令)을 써서 처결할 방침인데 이로인하야 각처에토지기업자들은 대타격을 면치못할모양이다

京畿道內乘合車業者 合同機運成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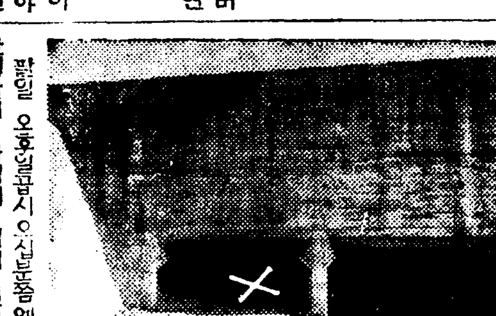
各車部의價格評定까지되어 不遠間統一會社出現

경성(京城)에서 리천(利川)원주(原州) 장호원(長湖院) 려주(驪州) 충주(忠州)로가는 다섯방면의 자동차업자를 사이에재작년부터 합동(合同)하자는 경향이잇서 그동안 각선로를 단위로다섯조합이 설립되여잇던바 요지음 그합동의 기운이 드디여 익어서 이를한회사로 합동키위하야 지난륙일 경기도보안과에서 업자 십이명이모혀서합동위원회를 열게되엿는데 이위원회에서 각자동차부의 가격평정이무사히 끗낫슴으로 오는 십이일경에는 드디여 그합동회사의 발기인회를 열게까지되엿다 현재까지의 영업자 십이명중 조선인이 십삼명이되는데새로회사가 될더로 이대회사에로의 자본의대합동에의하야 영업비의절약 발착시간의통제 경영의합리화 차량마 설비의개선 원수적룡금인하등의조호결과가 기대되는것으로도보안과에서도 이통제를찬성하야 이를설립시켜 일반리용자들의편의을도울터이라고한다

대동군 림원면 (大同郡林原面) 대동경찰서 (大同署) 북방사「키」

룸펜·아파트·喧騷·曲

榮橋미테몰려사는人生의落伍者들 地上樂園謳歌中에現場發覺



팔일 오후일곱시오십분쯤에 룡산경찰서 사법계 백석(白石)형사가 부내 영정(榮町)일정목 룡산인쇄소압흘 지나자 욱천(旭川)에 노혀잇는 영교(榮橋)우에서 흘러오는 하-모니카의 멜로듸ㅣ(애조의 아리랑곡)에 도취하야 거리의 음악가가 누구인가하고 그곳으로가자 갑작히 주악을 끗치고 도주하기를 시작하엿다。수상히 역여 추격체포하야 그를 취조한결과 그는원적을 경북 청송군 안덕면 (慶北靑松郡安德面) 에둔 주소부정의 신원한(申元漢)(二二)으로 그는 일당 삼십명의 룸펜단의한사람으로 영교아래에 주서드린 판지 거적등으로 만드러노흔 룸펜아파ㅡ트에 근거를 두고 지나는자인데 그곳에는 절치한여러가지 물건과 무연탄(無煙炭)이 세가마니나 잇섯다 다숨개를을 이루어노흔 란로도 잇서 석탄의출처를 추궁하자 그는부내 한강통(漢江通)일백삼십일번지 삼국상회(三國商會)저탄장에서훔친것을자백하엿다하며 룸펜일당중에는 유명한 전과팔범의 립원삼우위문(立原三右衛門)(三五)이라는자가단장으로서지휘를 하고잇섯다는데전기 거리의 음악가는 인치한후 여죄를 추궁중이라한다

(사진은 소굴의영교)

製粉所에서發火 三棟二戶全半燒

九日、竹添町에火災

구일오전세시경에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사백십번지 제분업(製粉業)황선묵(黃善默)의집에서 불이나서 그집조가이동일호를전소하고 리웃집초가일동일호를반소한다음 동사십분에 소방서원의힘으로 겨우진화되엿다 손해는 약이천원이고 원인은구역년말이라 떡가루만들기에밧바서 야간작업을 늣게하고 온돌방에 호롱재 장이들어버렷는데 이초롱에서 옴가지에연소된것이라고한다

練習機不時着

【平壤電話同盟】 구일오후령시이십분경 평양(平壤)부근에서 야외항공연습을하든 비행제륙련대제삼중대아소(阿蘇)중위의 탑승기는 돌연기관에고장이 생겨

事業資金 十萬圓分給

총독부 사회교육과(社會敎育課)에서는 각부인단체 각청소년단체 각교역단체등에 각종사업자금을 분배급여할터인데 십이년예산은 약십만원으로 오는 삼월말경에 시행할터이다

아마拳鬪協會主催 拳鬪選手權大會

來廿七日과廿八日에

새로히 創立된 全朝鮮아마튜어拳鬪協會에서는 첫事業으로 第一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를 來二月二十七日과 二十八日의 兩日間 午後七時부터 朝鮮日報社 大講堂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參加希望者는 二十五日午後四時까지 京城府太平町 四九(泰平拳鬪會)同協會事務所로 所屬氏名 階級을 明記하야 參加金 五十錢과 함께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그리고 同協會에 加入한 團體는 城大、延專、普成、養正、山、洪城、禮山、光州、大邱、水原、順天、平壤武會拳鬪部、京城、東寧、尙武로 十三團體라고한다(入場料 一般五十錢、學生三十錢)

徐廷權大阪서一戰

【大阪】 우리拳鬪界의 猛將徐廷權君은 三次渡美하야 不利하야 苦戰하지 내든中 今春大阪拳鬪協會의招聘을바더 來十一日午後六時부터 新世界國技館에서 田中工人君과對戰하게되엿는데 勝負를爲하고 方今猛練習을 거듭하고잇다고한다

調査委員會에서 競技場을決定

【東京電話同盟】 올림픽大會各種競技場을決定하는 올림픽調査委員會에서는 八日午後五時부터第九回委員會를열고

一、욧트하ㅡ바ㅡ 第一候補 橫濱港 第二候補 東京港
一、漕艇코ㅡ스 第一候補 戶田橋 第二候補 手賀沼
一、自轉車競技場 芝浦埋立地
一、올림픽村의施設은 永久的의것으로 木造二階建分散式으로 一個年의借地料와함께二百四十萬圓의見積으로합

等縣案全部를 決定하야 이를 組織委員會에 答申하기로되엿다 이로써 調査委員會에서는 一月九日初會合以來 一個月間에 九回의委員會를열고 競技場以下의 敷地를全部決定하야 任務를 다하엿는데 今後組織委員會가 이를如何히決定할는지 興味를이끌고잇다

氷上王國諸威의 續

世界스피ㅡ드·스케ㅡ트界의 强國諸國의 今年度選手權大會成績은다음과갓다

【五百米】 1앵그네스탕경四三秒 2헬드센 2그륵그 四三秒八
【五千米】 1엘비젠八分四一秒八 2매리ㅣ센八分四二秒 3맹그베八分四二秒六
【千五百米】 1앵그네스탕경二分二一秒七 2헬드센二分二四秒二 3매리ㅣ센二分二四秒三
【一萬米】 1매리ㅣ센一八分一一秒九 2맹그베리ㅣ一分一一秒七 3엘비젠一分二三秒七

講武館記念式

慶雲町에잇는 講武館에서는 來十三日午後八時부터 同館道場에서 創立十五週年記念式과 左記諸式을擧行할터이라고한다

◇式順

一、顧問、嘉納先生奉讚式
一、柔道寒稽古十個年皆勤者表彰式
一、今年度寒稽古皆勤狀授與式
一、昇段、進級證書授與式
一、授與式

舊歲暮의憂鬱相 自殺(未遂)事件頻發!

구년말을하로남긴구일 본정서관내에 자살이세건이나되엿다

▲본정(本町)일정목이번지 화국안경공사(華國眼鏡公司)의 고용인으로잇는 시흥군(始興郡)출생 현장주(玄長柱)(二九)는 구일 오전한시쯤에 생활난을 비관하고 자기방에서목을매고 기절하여넘어진것을 주인호씨(胡氏)가발견하고 곳의사를 청하여다가 응급수당을한결과 생명은 건질것갓다고한다

▲부내광희정(光熙町)이정목에사는 식목공(植木工) 박갑복(朴甲福)(四九)은 가족이 일곱이나되는데 동절이라수입은업는데 구년말을내세우고 달려드는 채귀에 졸리다못하야 구일새벽 부내장충단(獎忠壇)공원부근소나무가지에목을 매고죽엇다한다

▲청원여(鐵原驛)아페사는 술도매상 강도의웅(江島義雄)(二八)의처 城縣)아페잇는 대경려관(大京旅館)에서 다량의카루모틴을 먹고 고민하는것을 봉래정(蓬萊町)에잇는 옹급수당을 가한결과 생명은 질것갓다고한다

男尊女卑思想에 죽엄으로抗議

鬱悶女가投井自殺

아직 이땅에 기피 뿌리박고 잇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넷쇠사슬에 부닥치어 죽은젊은마누라가잇다 구일새벽 한시쯤에 시내 창신정(昌信町)사백오십칠번지의오호 서차원(徐次源)의집우물가에서 철석하는 물소리가 나기에 그집안사람들이 뛰여나가보니 서차원의마누라 리회순(李會順)(二三)이가 무참히도 우물에 십여일전 첫아이로 딸(淑X)이를 출산하엿스나 귀여운 옥동자만기다리고잇든 모나 일가족이 모두조아하지안허 이미 혼자 외로히마음만상하고잇든차 수일전에는 그의친형이금을횡령하엿다는 죄로 징역을 밧고하야 더욱그의마음을 졸리여 끄끗내 그는 한안여자의설움을 우물에

天氣豫報

概況 大陸의高氣壓은 東으로移動하야 오늘아침에는 朝鮮으로부터 日本海로 퍼지여 國境中部에 七七八耗를 示하고 北滿州와 日本內地 瀨海上에는 氣壓이 얏타지고잇다 滿洲와 朝鮮은개이고 氣溫은어적게아침보다는 四度內外나 노파젓다 本州南岸은 晴其他는 흐려잇스며 東北地方에는 處處에 小雪이나리고잇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흐렷다개엿다 할터이며 明日도 가트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五度六
同 最低 零下六度二
今朝最低 零下二度九
今日正午 三度六

賭博團二百餘件

【信川】 신천경찰서에서는 작년십이월말경부터 올려년말까지에 궁하야 엄밀한경계를 계속하야 군내에 도박군을 일망타진하여 이백여건에 달하엿고 룬치장은 언제나 대만원이라하며 그중에는 수천원식도박금을가진 신사도바단도 걸거되여 방금준절한 취조를 거듭한다는데 이아프로 더욱경게 단속하리라고한다

搜索願四件

구일 종로서 보안계에 접수

▲시내 권농정(勸農町)사십번지 최득원(崔得原)(三二)은 지난달 십륙일 행촌정(杏村町)이백십번지 현경선(玄景善)의 비이올린을 빌려간이후 얼골조차볼수업스니 차저달라는것이다

▲청주군 부용면 외천리(淸州郡芙蓉面外川里) 박영식(朴英植)(三四)과 가튼곳 강명환(姜明煥)

裵)의처 송성녀(宋姓女)(三〇)의 두사람은 수일전 손에 손을 잡고 남편외든 륙십원으로 중년(中年)의 애욕도피행을 결행하엿다고하야 그의남편에게서 수사원을 들엿다

▲창신정(昌信町)일백삼십일번지의 일백사십호 최봉순(崔鳳淳)의처 김중간(金中間)(一七)은 현재의 결혼생활에 염증을내고수일전 어디로인지 행방을감추엇다고

▲인천부화평정(仁川府花平町)삼백십일번지 김종현(金鍾鉉)(二二)은 최일날 그의종로 정기식(鄭基植)(一七)이가 오토바이 판것을 사달라는돈 일백오십원을가지고 어디로인지 꽁문이를감추엇다고하야 차저달라고

刑事집門아페서 贓物실은大盜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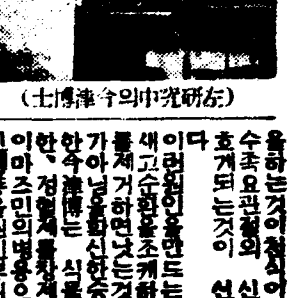
싹수노란 절도가 새벽장업는 형사의집아페서 장품을 구루마에실타가 이소리를듯고 뒤여나온 형사의 수갑을바덧다 구일오전네시반쯤 부내 공덕정(孔德町)일백삼십구번지에사는장경선(張敬善)(二五)은 태평통(太平通)이정목 이백삼십삼번지 양자기장사하는 삼포행일랑(三浦幸一郞)의 창고에 전날밤부터 무려다섯시간이나 걸려 뚜러노흔구멍으로 양대여 사백마흔네개와 양자기합백스물다섯개를 훔처 부근에사는 본정서 최형사(崔刑事)와 집아페 싸어노코 이것을「리야카」에 실코잇는데 이상한소리에 놀란 최형사가 옷도밋처못입고 대문밧그로 나가든바 이기미를「알어채린범인이 일정남어지나 다라난것을 추적하야 일대격투를 연출한다음 겨우수갑을채웟다한다

谷城郡石谷에電信 電話事務取扱開始

체신국에서는 전남곡성군석곡(谷城郡石谷)우편소에 전신사무와 전화통화사무를 취급식히기로하야 그동안공사를 진행중이던바 이제그준공을보게되여오는 십일일부터그사무를실시케되엿다

喘息·神經痛

原因부터治療하는 今津博士의새로운療法 不治는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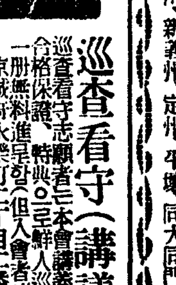


(左研究中의今津博士)

이병은 감기, 컵땡, 편식, 변비위장병등으로 신체를기르는 혈액이탁하야 순환이낫부게되는까닭으로 기관에담이엉키여 기관지나심장의신경을자극하야 담기침, 숨가쁘고, 호흡곤란으로씩씩하는것등으로곰방숨이끈허질것가티고통이러한이유만드는 피의탁함을업새고순환을조케하야 신경의장해를제거하면낫는것이니 결코불치가아님니다 今津博士는 식물요로분이에서가장 유명한 정기제를창제하여 그복용과 이마조미인의병용으로 날치의천식, 신경통을원인부터 꼿치고대단히깃버한다. 이병으로고통을밧는사람은 주저말고엽서로 大阪市販賣總發行所 今津研究所로오든지 조선에보내서 곳치기지 조선진보를오려서 병증상에 표를하야 편지를보내면 어려운병을 원인부터치료하는바사독특한처방을 무료로 히일녀주며 친절

珍花 ばら と
最新ばら、朝顔、種子、球根 春の總目錄無代進呈
兵庫縣川邊郡山本 旭植物園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一丁目、同本町二丁目、龍山、仁川、平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三千浦、統營、馬山、鎭海、釜山本町、同牧ノ島、同富平町、麗水、方魚津、元山、咸興、端川、淸津、羅南、會寧、沙里院、信川、永興、吉州、雄基、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載寧
出張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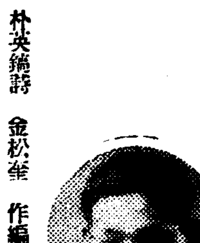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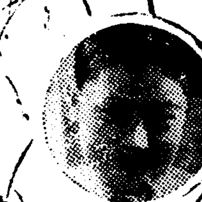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 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 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郵券3錢) 振替京城(2)三〇三〇番

青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以上 自宅執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 略歷記入申込次第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百日咳에는 아해가조와하는 小兒用고데스
コデスのすき 大すき
懸賞標語募集 最新鎭咳藥고데스의 特色을 表現한것을募集一枚에一句式限합 優秀作에는薄謝를進呈합
本舖 東京市京橋區入舟町 製藥所
맛이달콤한시럽뿌劑로 한기침이차차잘낫는다. 大好評입니다. 定價는 錢부터各藥店에서販賣합니다

本社工場新築記念 朝鮮吹込所設置記念 臨時發賣盤





民謠 千里春色 (一九五〇) 朴英鎬詩 金松奎作編曲 平壤이나혼·咩歌姬
港口의 선술집 (一九六〇) 朴英鎬詩 朴是春作編曲 新人金貞九入社第一聲
連絡船은떠난다 (一九五〇) 朴英鎬詩 金松奎作編曲 張世貞
戀愛特急 李蘭影 金貞九
오-케-레코-드

一金有望한
軍手의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業者에對하야 各面一名限하야 新規開業 資金의補助的 特別割引으로써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九番地

純國産
㊀のテウインガム
口臭를업새고 齒牙의淸掃作用을하며 咀嚼으로서唾液의分秘를促하고 消化를도아씹을수록 齒齦을단단하고 튼튼하게한다
씹으면

Maruima kokusan gamu
朝鮮代理店 京城府本町二丁目 ウラシマヤ本店
北鮮代理店 咸南咸興府大和町四丁目 京阪屋
咸南咸興府本町二丁目 三光本店
製造發賣元 名古屋市中區北一色町 合名會社 伊藤製菓所

12 2 10

慢性胃腸病에는

治療藥 アイフ

아이후

厥冷으로생긴泄瀉腹痛 겨울에惡化되기쉬운慢性胃腸病에防寒보다治療藥アイフ의服用이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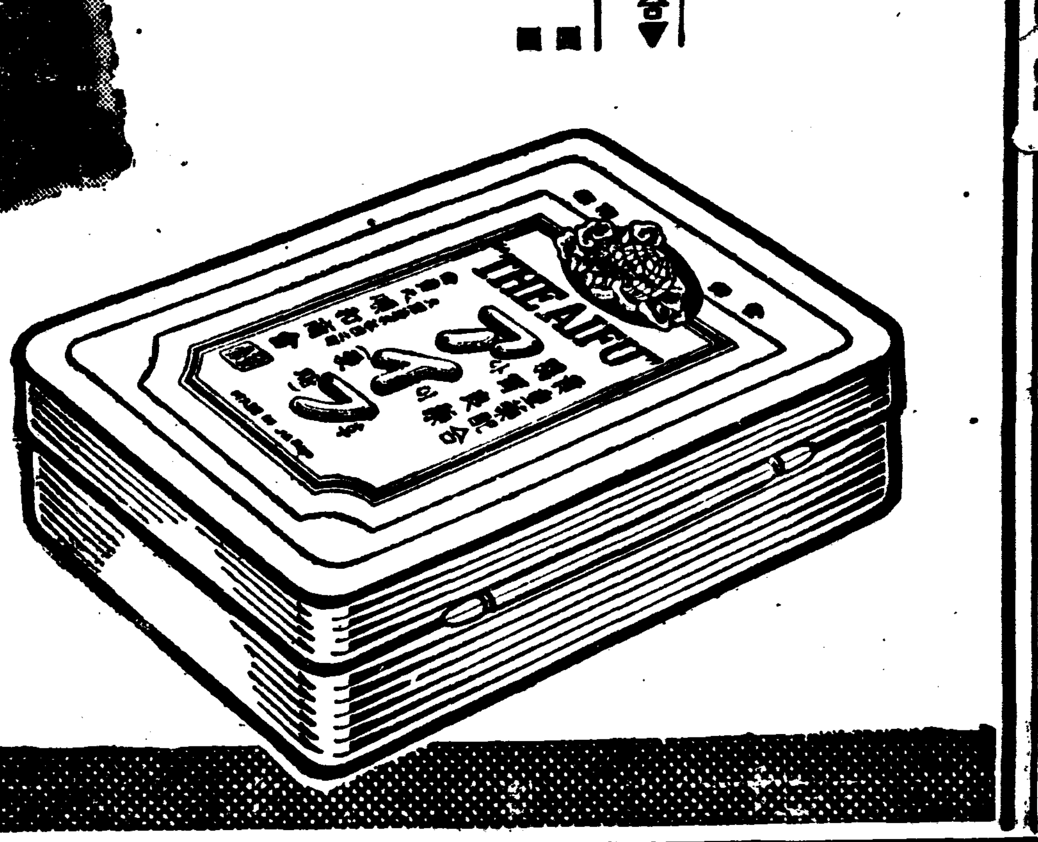
胃腸病은 慢性이되면 榮養의低下로 身體가 衰弱되고 추위에 對한抵抗力도 적어짐으로 조고만한 厥冷이나 食物의 加減으로도 泄瀉腹痛을 頻發식히고 스사로情이 업슬만큼 되는대이것은 오랫동안의 無理、不攝生으로 胃腸의機能이 낫버저고 오래된ゴム와 마찬가지로 彈力이줄고內壁에는 험집이나 진무름이 생기는고로 食後나空腹時에 압흘뿐아니라 조고마한 刺戟에도 腸의蠕動이亢進하야泄瀉를하고 消化酵素의 分泌異常으로 腐敗 또醱酵를 이르켜 泄瀉하는일도잇다。 따라서 이러한것은 蛋白質、脂肪、비타민、榮養劑等을 無暗히 만히攝取하여도 불업는煖爐에 石炭만처넛는것과가트며 熱源의 充實等容易히 바라기어려운것이다 그럼으로 症狀의 增惡하기쉬운 寒冷期에는 防寒、保溫보다도먼저 이러한障害를 除去함이 先決問題일가한다 거기에는單只 止瀉劑를쓴다든지 消化酵素를 補給하려고만 하지말고 病原인胃腸粘膜의 炎症、糜爛、弛緩을 곳치고腸管의蠕動異常도 整調함이가장 重要하다。

治療藥アイフ에는 꼭 이러한 病源的治療作用을 加하야 對症的藥効도잇고 主藥이胃腸內壁瘡面에 沈着하야 炎症을곳치며 粘膜을强하게하야弛緩을緊縮시키며 分泌나 蠕動異常을 整調하는 同時에腸管內의 有毒物質을 吸收하야 體外로 排泄하는等廣汎한 病原治療를 營爲함으로 厥冷으로생긴 泄瀉腹痛은 平素의慢性胃腸病의가슴아리、噯氣、惡心、胃痛、嘔吐、消化不良 食慾不振等의 諸症狀들도 消退하야 胃腸機能의 健全한 活動을助成한다

●急症에는特製アイフ 便祕症에는加減アイフ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十七日分 三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製十一日分 五圓



00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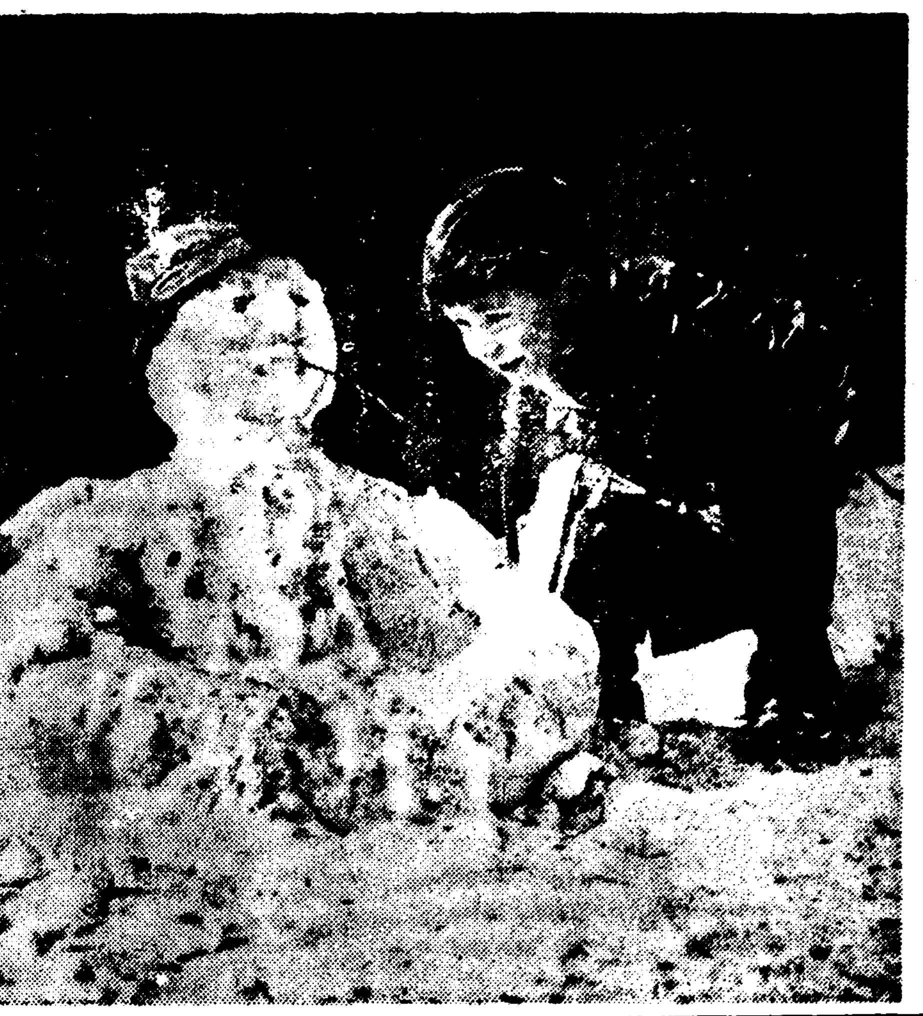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頣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番・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六番 電話(小石川)五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番 電話七六〇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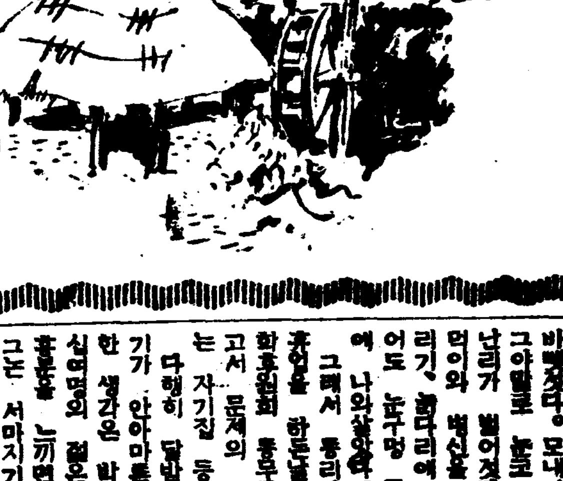
인제 거러봐라!

발육에도 해가업시 오래살자면 하로에멧끼니나?

한끼는물론이요두끼도부족하니 가장조흔것은세끼니쯤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은 정한 일이지오만은 하로에 멧끼를 먹어야 더 잘 살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떠이는 하로에 두끼가 조타고 하고 어떠이는 하로에 세끼가 조타고 하고 어떤이는 하로에 한끼가 조타고 하고 또 어떤이는 배고픈대로 자유스럽게 먹는 것이 조타고 하야 각인각설로 떠들고 잇습니다。 멧끼의 분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한 표준을 세우지 못 하고 잇습니다。 이때껏은 일레한 것을 이때껏 연구치 못 한대로 버려 두어서야 쓰겟습니까? 게거 대한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오리다。

사람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실험하야 보앗스면 제일조켓지요만은 그 것은 될수업는 일이라 쥐를가지고실험하기로 하얏습니다。 그래서 쥐를 네데로 나누어한 떼는 하로 한끼를 먹이고 또한데는 하로 두끼를 먹이고 또한데는 하로 세끼를 먹이고 남어지 한데는 끼니를 정하지 안코 자유스럽게 먹이어 보앗습니다 그랫더니 하로 한끼를 먹인 것은 실험 시작한 첫달에 전부죽어 버리고 두끼를 먹인 것들은 죽지는 안어도 영양(營養)이 조치 안코 세끼를 먹인 것들은 영양이 상당히 조코 자유스럽게 먹인 것들은 영양이 세끼 먹인 것들보담 더 조아서 아조 우수한 성적을 보이엇습니다。 그러고 봄즉 발육(發育)하는데는 한끼먹는것이 제일 나쁘고 자유로먹는 것이 제일 조타고 판정됩니다。 얼마를 발육된뒤 세끼를 빼는 것도 자유스럽게 먹인것은 백의 열들다섯 세끼를 먹인것은 백의 쉰로 두끼를 먹인것은 백의 스믈다섯이엇습니다。 발육한이아니요 세끼를 낫는데도 자유로 먹는것이 제일낫다고 판정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모든 쥐를어려서 똑 가리 적당하게 먹이다가 다발육되뒤부터 어떤것은 한끼 어떤것은 두끼 어떤것은 세끼 어떤것은 끼니가 업시 자유로 먹이어보앗습니다。 그결과 제일 오래사는것이 세끼먹인것 그다음은 자유로 먹인것 그 다음은 두끼 먹인것 아주 단명한것이 한끼 먹인 것이엇습니다。 또 그 끼니에 따라서 얼마나 먹는 분량이 틀리나 그것을 조사하야 보앗습니다。 그 결과 자유로먹이는 것이 가령 백을 먹는다고 하면 세끼 먹이는 것은 아흔다섯、두끼 먹이는 것은 여든여덟、한끼먹이는것은 일흔 둘의 비례(比例)로 됩니다。 그러고보니 발육이나 세끼낫는때는 끼니업시 배고픈대로 자유스럽게 먹는 것이 가장 조흐나 오래 사는데 잇서서 세끼를 먹는 것만 갓지 못 한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보아서는 세끼를 먹는것이 한끼나 두끼보담은 물론이요 자웃스럽게 먹는 짓보담도 낫다고 볼수 밧게업습니다。 그야 이것은 쥐에 대한 연구지요만은 우리사람도 별반 큰차이는 업슬 것이 아닙니까? 두끼를 잡수시는 분들도 이제부터는 점심의 한끼를 늘리시는게 엇떠습니까?



『물방아』

물방아 돌아간다
쿵덕쿵 딸쿠닥。
밥방아는 쿵덕쿵
죽방아는 딸쿠닥。
마을압 물레방아
잘도 돌아간다。

(글쓰사람 전춘파)

쓰다남은푸성귀 싱싱하게두는법

◇푸성귀를 한단을 사다가 쓰고 남거든 통에다가 물을조금부어노코 거기세워두면 그 이튼날도 생생한대로 잇서서 시들지를 안습니다。

◇파는 파란줄기가 시들기쉬우니까 그부분을 몬저쓰고 하얀 밋둥을 남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홍당무나 우방자가튼 것은 가느다란 편으로부터써 가야 할것입니다。

◇무는밋둥으로 갈수록 쓴맛이 더한만큼 그런편은 국끄리는데나 찌개끄리는데 너허야합니다。 무청을 흔히버리시는분들이 만흔데 무청에는 비타민에이가 만히잇서서 그대로 내버리기는 퍽아깝니다。

◇우방자가 시들거든 하로밤쯤 물을뿌리어 둔다면 싱싱해집니다。 혹은 뜰여페 무더두고 써도 조흡니다。

◇캬베지 즉 양배추는 어두운데다가두고 껍질을 벗겨가면서 쓸것입니다、그런데 어퍼서 노치말것、물을적시지말것 등 주의하여야합니다。

양력에 쪼기어 자취를숨기는 음력설풍습 ②

吳淑根

밤셈

섯달그믐날저녁에 잠을자면 눈섭이 센다는말이 잇서서 만일 잠자는 아희가잇스면 다른아희가 몰내 그아희의 눈섭에 분칠을해노코 흔들어깨여가지고 석경을 뵈여주며 놀리기도합니다。

잠은 휴식(休息)이니 건강의 회복을 위하야 한낫 중요한생활현상(生活現象)입니다。 쇠약한몸、병든사람에게 안면(安眠)이어엇습니다。 실로 안면(安眠)그것은 사악(邪惡)도욕심도 죄도업는의인(義人)의 가쾌한향락(享樂)입니다。 우리는아친인사에 『잘잣나!』 『잘주무섯습니까?』

이러케 뭇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친절한례의(禮儀)며、또 교훈(敎訓)입니까。 그러나 이와반면(反面)으로잠은 중지(中止)요 정지(停止)요 종식(終熄)이요、함축(含蓄)이요 수장(收藏)의 정적현상(靜的現象)입니다。 들결도 자고 바람도 자고 소리도 자고 …… 자고 자고하는잠——이것은동(動)에서 동(動)으로 넘는고개요 생(生)에서 생(生)으로뻐드라는 묵시건만 어찌타! 인생의잠이、한번들면 깨일수가업는지요。

×

『인생기하(人生幾何)오 병촉야유(秉燭夜遊)하자』든말이 어찌 한갓 다정다한(多情多恨)한 비애(悲哀)의발로(發露)일뿐이릿까。 그럿습니다 우리는 하로자고 이틀자고 일년 이태……자고깨고 깨고자는동안에 어느덧년광(年光)이길어 백발이소리업시덥치게됩니다。 비단 눈섭만세릿가。 『당신은 이밤을 나와가티 자지아니하시렵니까? 네!』 이말이얼마나반갑고 고맙고 정숙하고 달콤 향긋한말이겟습니가。 그러나 이것이당신은 나와가티죽기를원치안느냐는 소롱이끼칠무시무시한 새파린소리인줄은 꿈에도생각하신적이업것지요。

×

일즉이 예수께서 당신의사명(使命)을다하실날이 각가웟슴을 아시고 『게세마네동산에올라 『만일할만하시거든 이잔(苦盃)을 내게떠나게하소서……』 이와가티 오밤을피땀을흘려가며 기도를마치신후에 나에나리시니 산밋해서기다리고잇든 그의 제자들은 피곤한채로 저마다쓰러저서 코를골고잇섯습니다。 이런섬섬하고답답한거동을보신그는 『너희들은 나와함께 잠시도깨여잇지못하느냐』고 꾸지지섯습니다。 어두움의밤은 너의대적(對敵)이니 명념하라。 머슴애는무장(武裝)을잇지마라 그러고 깨여서자고 자나깨여잇거라……

京城女子基督青年會 主催

第九回 女子懸賞歌鬪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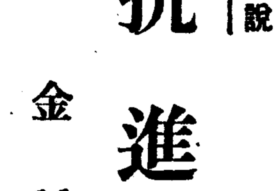
會費三十錢

時 二月十九日午後七時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에서

申請 二月十八日午後二時까지·定員五十名에達하면 그前에라도 마감해버립니다 同會館으로 申請하십시요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短篇小說

抗進記 (13)

金廷漢 作 鄭玄雄 畵

(무슨 영문일까……?)

두호는 새로운 걱정을 어덧다。 그는 잠간 사방을 둘러보고는 난렵하게 대문밧그로 빠저나왓다。 그리고 눈을 둥그러케 해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보앗스나、으스름한 달비체 행길은 훤하게 비고、들판에는 개고리소리만 어지러울 뿐이엿다 두호는 소리라도 처서 불러보고 시펏스나、야밤중에 그럴수도 업고、한갓 속만 태우다가 급기야 가깝증이나서 미친듯이 한참 한길을 내달렷다。 그러나 필경 영애는 흔적조차 보히지 안햇다。……두호는 영애에게 무슨 큰 죄를 지은듯 시펏다。 마음이 더욱 초조하고 더욱 어두워지고、더욱 무거워젓다。

영애는 그날밤 두호의 방에서 나오든그길로、아무 행장도 차리지안코、여자혼몸으로 그냥 ……

그를 두고서 여러가지 풍설이 이러낫다——영애가 태호와 배가 잔득 마잣는데、태호의 칠촌아저씨가 그만 강짜를 내서 그를 내쪼차낫다는둥、혹은 태호의 칠촌아저씨와 아주 좁이나게 부텃다가 집안사람들에게 들켜서 내쫏긴게라는둥 아니 그런게아니라 태호와 그의 아저씨와 두 삼이 세사람사이에서 졸리다못해서 도망을을 햇다는둥……그렁성저렁성 한입건너 두입건너 소문은 소문을 낫코 그소문이 또 소문을 깟다。 그리고 소문은 매양 태호의아저씨와 영애에게불리하엿다。

소문에 관해서는 두호는 끗까지 입을떼지안햇다。 그는 다만 영애의 간곳을 몰라서 지극히 궁금하고 염려하엿슬따름이엿다。

태호는 영애가 떠난후로 더욱 기가 죽엇다。 소문도 소문이엿거니와 그에게는 영애를일엇다。 그는 그후 미칠듯이 세상이 귀치안흔것이 아버지와두호를 따라다니며 박거낭이 의서서 두뒤 솔씨로서 절인일을 도으로 노라고 돌을이 빼지드니 그만하로는 간다온다 말도업시 어디론지 가버렷다。

두호는 인제 그러한 형을 그리 욕도 원망도 하지안엇다。 도리어 형의 처지로서는 어느정도까지 허는수업는 일이라고 초탐햇다。

태호가 내빼고 농혼 백욱바뻐젓다。 모내기가 시작되자 그야말로 논코 돌레언든 일의 날리가 벌어젓다。 정컨마다 첫 머이와 벼선을 빼노코는 코를 리기、눕다리에 이러기까지、허어도 논구멍 돌린돌으 저다 들에 나와살앗다。

그래서 동리야학회의 농번기 휴업을 하든날저녁、두호는 야학회원과 동무들과 의논을 해서 고서 문제의 꼬투리가 되여잇는 자기집 동답엔으로 갓다。

다행히 달밤이엿다。 두호는자기가 안아마를 꼿뒷의 벼납한 생각은 바치버리고 다만 이십여명의 젊은 동무들과 한가지 흥분에 느끼면서 닭이 울때까지 그는 서마지기의 보리를 한숨비어치웟다。

그리고 이튼날은 새벽부터모를 내기시작햇다。 야학회원의 동무들은 말렷것도 업고、그들의 어머니、안해、누이동생들까지 논을 썰고、일변으로 모를 심엇다。

그러니깐 일은 자연 벼벅굿이되엿스나、사람수가 만흔것이 무엇보다도 서로 힘이되엿고、마음이 절로 흔들리하엿다。

『이라 이놈의 소!』

두호는 바삐게 써리질을 하느라고、물에 빠진 쥐꼴을 해가지고、생고함을 첫다。 매롱비돈 소란음은 허구리를 옹졸하면서、철벅철벅 물을 찻다。

장기를 잡은 최우들도 난렵하게 소뒤를 따라다녓다。

모를 내는 사람들도 볼이나게 바뻣다。

이런 난리판에、저기를 지나가든 구장이 뜻밧게 두호를 눈두렁으로불러내드니 편지 두통을 내주엇다。 며칠이나 가지고 다녓든지 아주 모양업시 구겨진것을——。

두호는 때가 때라 수상스럽게 바다들엇다。 그러나 한통은 형으로부터 또한통은 뜻밧게영애에게서 온것이엿다。 형과 영애? 두호는 잠간 몰롱햇스나 다행히 두사람의 주소가 달럿다。

두호는 망서릴새도 업시 형에게서 온것부터 먼저 떼엿다——。

찻줄히 나와버렷기때문에 집에서 모다들 염려햇지? 나는 지금 어떤 친구의집에서 먹고잇다。 될수잇는데로 빨리밥자리를 찻겟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는 그대를 존경한다。 그대는 확실히 의지가 굿센『생활의인』이다。 『실행의인』이다 내가 공상가인 대신에。

그리고 그대의 충고를 달게 밧겟다。

확실히 내게는 함렛트나 오브로—모프의 제자가 될 위험성이 만흠을 자각 하기때문에。

그리고 그곳일은 전부 그대에게 맛긴다。 내일은 조금도 걱정말어라。 다음에 또 편지 하마。

오월××일、××일보××지국 박 태 호

다 읽고난 두호의 얼굴에는 예기치안흔 기쁨이 저절로 떠올랏다。 일회든 형을 차진것가티 반가웟다。 아니 죽엇든 형이 깨난듯 하엿다。 그는 방속같을 모르고 그편지를 재삼 재독하엿다。 그리고 형의 새로운 심경과 결의를 알게되자 지금까지 형에게 대해서 가젓든 모든 불평과 불만이 그자리에서 곳할아지는것 갓햇다。

두호는 다시 영애의 편지를

梅毒이 血管을犯하면 무서운脫疽에 걸린다

血行이멋고발까락이썩어 잘르지안으면안난는梅毒

무서운脫疽

梅毒은皮膚에만 보기흉업게體氣가생기고 發症하게되는것이아니라 脫疽라하야外科的으로大手術을안이하면生命에까지미치는무서운 梅毒疾患이되고만다 脫疽라는것은 體內臺도는動脈의 內面에梅毒의病變이생겨서 血栓이라는것이나타난다 이血栓은危險한것으로 이때문에血液이멋고 그結果로 발가락이 脫疽가되야할수업시발을잘르게되는것이니웨

이러나면 血栓이생기는가하면 이것은動脈內에 內膜炎을이르켜 血管壁이붓고 血管구멍이막혀血液이구러지는結果 血栓으로因한部分은全혀榮養이通치못하야 결국은 썩고마는것이다 勿論遺傳梅毒이나 後天梅毒으로도되여덜 정한밖이썩는것으로 그激痛은이로말할수업다

動脈에梅毒이

某博士의말을들으니 어떤資産家의子息이 大學을마치고 社會에발을드려노차마자 突然이무서운脫疽에걸려할수업시 발을잘럿는대 그原因을살펴보니 이것은 父親에게서 遺傳된梅毒으로 이

悲慘한運命을

밧게되것이라고한다。 이와가티父의梅毒이子息에게까지慘害를주는것임으로、그治療만은잣말로重要한것이다 脫疽뿐이아니고、脊髓를犯하야잘새이용가되는일도잇스며 腦를犯하야發狂하게하는것도 紡息治療나放心한대서 더생기는것이니 더욱中年以上者에게、動脈硬化、血壓이異常히高하지고、全身에……

特히動脈硬化

가 梅毒性이면은 脫疽의危險도잇고 도突風的으로生命을빼서가는腦溢血이나 心臟麻痺로쓰러지고마는일도잇다。 아모리든지이러한病의 危險을除去함에는 血液을淨化하게하는것이 무엇보다도必要하며 血液의淨化、血行의整調、代謝機能을 充分히活動히는 베루쓰丸의 內服療法을누지하는者는한번血液檢査를해볼必要가잇다。

抗毒素의힘이

濕해진으로、蓄毒이나體毒은勿論、腦梅毒、遺傳梅毒、疾毒、冷毒、神經痛、류마치스等에도適當하시效果를發揮하며、特히皮膚를犯하는여드름、부스럼、腫物의服用할수잇다라 그자체를갖추어주는能力이잇다 도한 適用하야副作用이업고血液淨化와더부러 病弱을 어셉으로 體質者間에好評이잇슴도 當然한바로 이로써 베루쓰博士의 베루쓰丸으로써 洋의東西를 不問하고 賞讃를할고잇는것이다

推奬하고저한다

베루쓰丸은 梅毒性의高血壓이나動脈硬化에對해서 有効한理由는 凝結하는梅毒素를消滅除滅하는힘이 藥物中의主剤가되기까닭이다 따라서血管壁의硬化나破裂을막고、새로운血液이흘거되며、新陳代謝도이보다더조케되고、또베루쓰丸을服用하야循環가明朗化하고 胃腸이强化하고 便秘가整調될도이러한內臟機能이活潑하게되는外에 엄더도한

梅毒과體毒 梅毒性부풀에 베루쓰丸

精選ベルツ博士 SUZUKI NIPPON-SEIYAKUSHA

價格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卅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

梅毒、體毒、瘡毒、橫痃漏毒、冷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티스、瘰癧、皮膚病、梅毒性부풀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諸히梅毒性疾患에良效잇슴。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社長 鈴木清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浪花(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新日本의傑作品

짤은싱거—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躍進日本!의覇者

이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世界的驚異를 낫고잇는바로서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을生産하게되엿습니다。

國産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優美한外觀에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될으로 只今은全世界를制御하야 『싸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 定評을밧고 멀리海外各國에까지 進出이 急速하게되는 壯擧를이루고잇습니다。

東京 本工場에서는 年産額 二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이며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여잇습니다。

全鮮進出을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 하고잇사오니希望者는申込하시면年賣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야드립니다。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帝國ミシン會社地方代理店

抱川郡 北靑郡 洪原郡 甕津郡 南原郡 信川郡 江西郡 安岳郡 江華郡 尙州郡 晋州郡 水原郡 長湍郡 松禾郡 殷栗郡 宜寧郡 咸安郡 陜川郡 昌寧郡 固城郡 論山郡 城津郡 益山郡 全州府 完州郡 光州府 光山郡 扶安郡 碧潼郡

會寧郡 楚山郡 坡州郡 長興郡 高城郡 咸興府 咸州郡 定平郡 新興郡 山淸郡 原州郡 江東郡 任實郡 密陽郡 通川郡 楊州郡 安東郡 龍泉郡 聞慶郡 奉化郡 洪川郡 瑞川郡 利原郡 金堤郡 伊川郡 統營郡 龍岡郡 鎭南浦 蔚山郡

淸津府 慶州郡 黃州郡 新義州府 義州郡 龍川郡 馬山府 昌原郡 麗水郡 南海郡 元山府 高原郡 淸州郡 振威郡 安州郡 蔚珍郡 鏡城郡 三陟郡 江陵郡 旌善郡 平昌郡 襄陽郡 永同郡 永興郡 開城府 開豐郡 長湍郡 (忠南總代理店 禮山邑)

資本金百萬圓 東京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六番

本社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一丁目
大阪支社 大阪東區心齋橋筋南久寶寺町一〇
各地支社 名古屋、靜岡、橫濱、神戶、京都西陣、甲府其他

蛇の目 미싱

學藝

지-드의 蘇聯旅行記 —그 物議에 關한 感想數題— (一)

兪鎭午

昨年十一月 NRF에서 出版한 지-드의 蘇聯旅行記는 蘇聯을 爲始해 世界各國에서 여러가지로 物議를 이르키고 今年一月에는 『中央公論』에 비록 全譯은아니나마 그 譯文까지 나타낫다。 그 다시 『세르팡』 二月號에 지-드의 旅行記에 對한 『프라우다』紙의 反駁其他 各方面사람의 意見이 紹介되엿다。 그러므로 世界文化의 動向에 多少라도 關心을 갓는사람이면 이미 이旅行記騷動의 顚末을 잘알고 잇슬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가지 材料를 읽어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한貴重한點——人間지-드를 理解하는데잇서서 무엇보다도 本質的인곳을 빼트리고잇지 안는가하는 조그만疑惑을 갓게 되엿다。 이곳에 지금 쓰라하는 것은 旅行記騷動의 顚末報告가 아니라 이疑惑을 모든사람과함께 한번 吟味해보자는것이다。

事實을말하면 나는 지-드의 文學을 從來 그리硏究하지도 愛好하지도 안해온사람이다。 내가 처음 지-드를 耽讀한것은 그의 『田園交響樂』에로의 轉向이 宣傳되엿슬때엇다。 『빵므스』 『마르로-』 等과함께 現佛蘭西文壇의 巨匠의한사람이라는것밧게는 그에對한 아모

……豫…… 備知識도업섯든내가 偶然히 처음본것은 그의『田園交響樂』이엇다。 그러나 事實을率直히말하면『田園交響樂』을 읽은後의 나의印象은 決코 조치못햇다。 나는 그곳에서 古典主義 象徵主義를通해— 그리고 보는데따러서는 自然主義에까지도! —佛蘭西文學의 가장 優秀한特質이면서도 同時에 가장 심각한弊害라고 할수잇는 洗鍊된 形式 現實의그림자가 稀微해지도록 孤獨된人間 그리고 造花의美를 또다시 보앗슬뿐이엇다。 現實의文學 生命의文學은 讀者에게 숨쉬고 힘찬文學은 餘俗을주지안코 精神으로 迫頭해 들어오는것이다。 그러나 이盲目의 美少女를 救하는 神聖한善의牧師의이야기는 달밋헤울리는 胡弓가락 고흐나 그러나가느다란 꿈속의 멜로디를들려줄뿐이엇다。 情熱이란 野生의것이다。 그러나 지-드의情熱은 冷徹한理性으로 하야 그것을 自由롭게 통제되는 것이엿다。 그러나 나는그의冷徹한 너무나

……冷…… 한理性가 도리혀무서웟다。 거기다가 宗敎的美觀에 全혀상관이업는 나에게는 그小說이갓고잇는 지즉宗敎的色調가 도모지心琴에 共感되지안엇다。

그後나는 지-드의小說을 몃篇인가 더읽엇다。 그러나 終始 그의文學은 나에게는 血緣關係를 맷을수업는 것으로 생각되엇다。 勿論 나는 그의巨大한文學的素養과 그것이가즌 노픈價値를 靜靜히 品評하라는者가아니다。 그의 『좁은門』가튼것을 읽고낫슬때에는 그것이야말로 小說技巧의 極致라고까지 생각되엇다。 조금 誇張해말하면 그야말로 한字도 더할수업고 한字도 더뺄수업는 珠玉가튼小說 말하자면 小說技巧의 典型이라고 생각되엇다 나는그小說의讀後感을쓰다가 몃番씩이고 『이小說을 되푸리해읽고 小說의技巧를 배우겟다』고까지 써노핫다。

그러캣만 나의지-드의 文學에 對한 愛着은 結局 그以上의것은 되지못하고말엇다。 지-드의 文學에對한 이러한 생각은 적으나

……一…… 個의 그릇된일른지도모른다。 더욱이 나 飜譯을通해서어든印象 그것도 그의著作의 全部또는 大部分을 읽고어든것이아니라 몃몃개 읽은것만 추려읽고어든것이以上 대단 미들만한 생각이라고는 할수업슬것이다。 그러나 그외비다 나自身에 관하야 한마디하여둘 가지고잇는 佛蘭西文壇에서의 地位아니 널리 世界文化戰線上에서의 地位가 勿論 그의文學的素質에만 原因하는것일가。 이것에는『노-』라고 對答할수잇슬을안다。

지-드의 偉大함은 그의비다는 文學的素質과함께 實로그의 藝術한 冷徹한理知 그理知가 判斷하는 眞實에의非妥協的態度 그리고 그理知의 擔荷人인 지-드自身에의 絶手不動하는 熱着— 이런것들이 아닐까。 事實나 自身 그의著作을 읽으며 느낀 것은 그의 作品을一貫하는 이러한眞實性에 對한 尊敬이엇스며 그가西歐各國과 蘇聯의左右兩陣營에 지금 喧騷와衝動을이르키고잇는것도 그의 이眞實한理性에原因하는것이다。

……虛…… 지-드는 모든 虛僞를미워하고 眞實을愛한 사람이다。 그自身이 告白하듯이 그는 바로만나서 이외싸워왓다『自己의 成長生涯를通해 그는 그의理性이 虛僞라고判斷하는것을發見하면 반듯이 勇敢히 이외싸워왓다『自己속에가지고잇는것으로서 自己에게는 가장 純正하고 가장價値잇는 가장健全한것으로생각되는것이 모다 周圍의因習、習慣、權威와 即時로 또直接으로 矛盾되고 衝突하엿다』(一九三五年

두長篇出版記念會 民村李箕永氏作인『故鄕』과 八峰金基鎭氏作인『靑年金玉均』의出版記念會는 지난七日午後五時 市內天香園에서 盛大히열렷다。(寫眞中선분이 두作者)

愁誰語 1

지용

밤 열한시를 넘어 돌아오게되니 집사람이 이르기를 槓萬 뽀이가 저녁 여섯시에 자기사관으로 부대와 달라는 말을 남기고 갓다고한다。 저를 내가 아는터에 제가 부르는 까닭을 내 모를리 업다。 하도 서운하야 그러타면 나제 미리電話로 기별을하여 주엇더면 退勤길에 달리새지안코 제한테로 갈것이테 허나 夜深한뒤 더가방을 차저가는 수가 업다。 네리이를 흡지 이내 코를 골앗다는것은다 용을 지쳐잠어 들은 말이나 이왕 집안 별명『수염난 간난이』에 적合바름비에 아 잘도 그를 들어야할것이아닌가。

몸이 조흔것으로 한되쫌은통 탁시신세를 혹시 지우지 안홀사하데 그것은 貴重의素質로 의론할바이요 남은것은 禮를 노핍것이며 分明을 기롤것이라。 얘당초 석기에 술 족이 잇고 얼리지 못할 때가 잇다。 자리를 먼저 보기를 地官과갓히 文書가 업서야 할것이라。 옷깃은 저사코 흡지안흘것이요 마음과 우슴은 플것이로되 입은! 아니、입은플지라도 말을 함부로 풀수업는일이랑、식상 이노롯이란 흡코 흡지안어도 못쓸려니와 또든 그리해도 못쓰든것이다。 요컨대 끗까지 善人의 잔치인지라 그러한 自信이 업시는 이자리에 안지못하리라。 혹시 스사로 얼키고 매치여 풀지못할 心疾이잇는자는 모롱직이 小心스러히 배우면 効를 어들것이나 필경 補劑로 마시는외에 지나지못할지며 태생이 어리석은자는 흉악한 野獸처럼되여 禍를 家國에 끼칠것이요 간교한 무리는이를빌어 옹직을 市井으로 끌고다니며 利慾을 낙는 밋기로쓰니 禍된옹식이 흔히 悉發하야 不測한罰을 나릴수잇다。 진흙에 쓰러지고 입술을 서로 바꾸며 자리에 도리어 치고 이를 가는빛 眼를 밧치안헛던가。 봇이 어찌 이리 따길로 헤매는것이냐。 다운날 저녁에는 흙이가 홀으지안흘지라도 자진하야 가라고한것이 역시 달리 길이열리어 시각을노치고 말엇다。 진사람이 또 이르기를 뽀이가 또 와다

學生作品

"隨想" 港口의 哀愁 【下】

中專 崔琴桐

그후로도 우리는 如前히 공원에서 만낫다。 約束도업스면서 約束이나한듯이 黃昏이면 公園에서 우리는 多情하게 만낫다。 나는 그에게 물음밀이 山처럼만헛다。

그들의 生活、風俗—政治問題나 社會、道德問題가아니라 도 少女—那美라고하엿다—가 꼿찰 對答할만한 質問이 山가티잇섯다 那美도 그러하엿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꺼리가 얼마던지 잇엇다。 그만치 少女는 참새처럼 잘도재잘거렷다。 또끼새끼처럼잘 도깡충거렷다。 이것만으로도 열엿게만놀앗다。 이러케두리는 情해젓다。 마치 戀人끼리나처럼 숫끝농모가티 우리는 놀앗다。

이러는사이에나는 개학이되엿스나 黃昏의 무렵에는 公園에나 오는것을 한번도 잇지안헛다

어느새 하늘도 드노파지고밤송이도 여믈어갓다。 코쓰모쓰바레도 한송이두송이 꼬치피기시작하엿다。 月尾島의그기운조름 湯煙氣나 풍성풍성한는 바다스가도 날날거듭할수록 未亡人의 서름을가저왓다。 우리두리거니는 숄그늘에는 선들바람이서리엇고 그길섭에는 들국화가 한들거리엿다。 밤이아니라도 버레소리가 시달리어 제법구슬프고 달밤이면 孤獨에 늣기보다 그것이무서워졋다。 나는 하늘이노파지면노파질수록 버레소리가 구슬퍼가면 구슬퍼갈수록 내마음은 안타갑다 이 기프면 기펄갈수록 那美와의 갈날날이 멀어지기때문이엇다 學校에 오가면서도 늘어가는 플내과 잣엽시 푸른하늘을 車窓에 기대여 바라보고는 공연이 깜짝깜짝놀래이곤 하엿다 公園에서 시들어가는 잔디에那美와 나란이 안저놀다가 멍하니 엉거시 그만 바라보고만잇는때가 만허젓다。 그도 각금가다 몹시 딱한表情을 감추지는 못하엿다。

그러한 어느날이엿다。 그날도 那美와나는 夕照에 물들인숫길을 거닐고잇섯다。 그리고 두리의거름이 코쓰모쓰닷가운데 이르럿슬때 那美는 거름을 멈추고 서글픈表情으로

『인젠 이러케두리서 놀날도메칠안남엇서요』하고 말하엿다。

나는곳『아、와야할날이 기어오고말엇구나』하고 가슴이뭉클하엿다。 그러고 나는

『웨?』하는 이소리박게더못하엿다。

『얼마안잇서 아버지하구가치고향으로간다우』

『웨?』

『호호호…아이우서죽겟네 머가 자꾸만 웨야요?인제는 가을이아니예요? 엄마한테가야조 머……』

『그럼…그럼…나미는 나보다엄마가존가머…줴!줴! 그만둬라!』나는 那美의말을채듯지도안코 짜증난 당나귀처럼 꿍원을 뛰여나렷다。 그러나 뛰여내리면서도 아무리생각하댓자 내가那美에게 심청을부릴條件이무어인가?떠나가랍건 那美를붓드를 권한이무어이가 내깐둑이 무어이라고 那美의엄마보다 려조와할 내려이무어인가?——하고생각하니 짜장 속소리운일이것만 그래도 내가는은 연상답답하다。 그래서나는 뛰든거름을멈추어서 다시도라왓다。 령비인숫길에 나도업시 혼자서잇슬 那美를생각하니 당나귀가티경솔한행위가 後悔되엿다。 그래서 나는그를차저서 사과하리라하엿다。

『내가잘못햇서! 다시안할께응서해、응?』하고。

그러면 그도 술그머니 도라설레지! 그때나는 또달내리라 아니 애원하리라。『故鄕으로 가지말고 나고가치 더노자』고— 그러면 설마—어떠면 내請을들어주겟지。 단열흘이라도—단하로라도—그래서 열흘도가고 하로 그나마도 간뒤에야 그것까지는 알어무엇하랴! 그때일을 지금 생각할필요는업다。 다만떠나려는 그가 단하로라도 나를위해서러 머물러잇서주다면 그는 그만인것이다。 나는이런생각을 하면서 코쓰모쓰 바르도 도라왓다。 그러나 거기에는 那美는 이미업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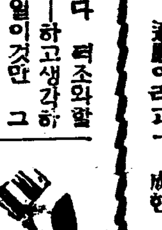
『아 那美는갓수나。 내가잘못햇구나』하는생각이 번개가티들든지 이런소리를 되푸리하며 그곳에 멍하니서잇섯다。 해는접어젓다。 港口에는앵도바레 앵도처럼 불비치 조롱조롱 열리엿다。

그다음날은 하로종일 비가나렷다。 그다음날도 개일줄을모르다가 그다음날밤에야 비는멋고 사못밝은 달이 소사다。 나는그달을두고는 그대로 자리에 누을수는 업섯다。 따라서 那美가 궁금치안흘수업섯다。 지금이라도나를만나려 그코쓰모쓰바레 나와잇슬것만가티 생각되엿다。 그래서 나는 쓸쓸한 그림자를 끌을고 코쓰모쓰바레나섯다。 그러나 버레소리만이 千萬의손가락이 千萬의鍵盤을 따리는듯이쏘다질뿐 那美의그림자는 업섯다 그리고 꼿바른 진퐁이되엿고 잔디우에는 落葉이 소복소복 싸엿다。 달은 이밤에 무슨眞理나 캐려는듯이 숨소리까지죽이고思索에잠가며 無限한거리를 거러가는가?

『뭐—』들은좋각의慟哭파도가른 목수이뱃고동이 銀色布帳을 길게 찌저노핫다。 이어서 휴각소리、닷감는소리—— 出港이다 또離別이다。 삽팔목도리만한 뱃연기가 밤바람에 나불거린다。 나는 불연듯 공원을뛰여내렷다。 그배에는 꼭 그那美가 타고잇슬것만 가탓다。 그리고 那美는 손수건을 흔들며 허접은 눈물을 홀리고 잇슬것만 갓타다。 그래서 나는 埠頭로만 달리엿다。 그러나 내가埠頭에 다다랏을때는 삽팔목도리 그나마도 달비체 호리어진뒤엿다。 다만 月尾島 저뒤에서 숭아지찻는 어미소의 우룸가튼 마주막의 汽笛이 구슬프게 들려왓다。 그리고 小月尾島의 燈台는 고앙이눈처럼 껌벅껌벅밟어서 두리번거리고 잇슬따름이엿다。

『아—』나는생각하엿다。「人生도航海로구나。孤獨한 航海로구나。」나는또 생각하엿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蒼白한달아래 홀로서서 바다처럼 잠잡이생각하엿다 『내마음의燈台는 어데메인고? 내마음의 港口는 어데메인고?……』

——(꼿)——



●蘿光 第四十七號(月刊) 發行所 奉天西塔大街 西塔敎會 蘿光社 振替奉天六四八番 定價一部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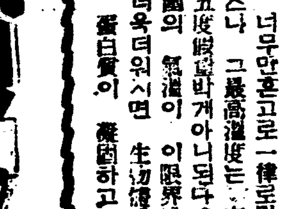
●新人間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樓臺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國民法律 二月號 發行所 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六六番 定價二十五錢

●祖國を顧みて(小泉裕生著) 了抹を中心とる 新米農村事情を紹介한著書 (東京淀橋區柏木町四丁目九二〇 農村振興會發行 定價一圓廿錢)

●監理會報 第四十九號(月二回) 發行所 京城府希東町三二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啓明時報 第三十五號(月刊)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一五二 啓明俱樂部 振替京城九二四〇番 定價一部五錢



紙上顧問

【問】小生은 音樂의 趣味를無限히가지고잇사오며 바이오린과 初步生으로서는 如何한冊이適當하오며 바이오린은 엇던것이 適當하겟슴니까? 販賣所와 價格을下敎하야주시요(一讀者)

【答】獨習으로는 大成을期하기 어렵습니다。適當한先生을 차저서 正式으로敎授를바드시요(學藝部)

科學

生物學上으로본 動物의冬眠現象 (上)

李仟求

이 世上의 모든生物은 그의 環境에 따라서 變化發達할수도잇고 或은 衰하게도 되는 것이다 周圍의 環境이라고하면 水分、空氣、日光、溫度가튼것이 모두 包含되는것은勿論이지만은 다른條件은 고만두고 그中에서 溫度에對한關係만 보더라도 우리地球의氣候가 只今 우리의 經驗하는 氣候에比하야 平均 몃十度만 더오른다든지 더내린다든지하더라도 이地球우에 生物相은 一變하지아니할수 업슬것이니 過去地質時代 中生代에 地球의 主人公으로 自處하든 巨大한爬虫類가 新生代時代의氣候의 變動으로因하야 全滅을當하고 그遺骸만이 地中에埋沒하야 化石學者의 硏究資料에 供하게된 悲劇을 演出하게된것을 보아도 넉넉히 想像할수 잇슬것이다。 그런고로 現在 地球各地의 生物을본다고 그들의 依息하는 그地方의 氣候가 自身의生存에 가장 適當한溫度인것은 勿論이지만은 우리朝鮮가튼 溫和地方은一年中 氣溫이 一定한것이아니요 春夏秋冬에따라서 變化가 잇는고로 모든生物들은 그變化에 適應하기爲하야 그形態나性質도 自己生存에 有利하도록 變化가잇지아니치 아니되는苦心이잇는데 이것을生物學上 術語로는 適應이라고 한다

그러면 普通生物에 잇서서 그生存이 可能한溫度의限界가 얼마이나하면 그것은 植物과 動物이 갓지아니하다 『溫泉바크테리아』가튼것은 攝氏八十度되는 溫泉에서도 能히繁殖하지만은 그것은 例外이고 普通植物이 生長하는데에는 最高溫度가 C四十度乃至五十度요 最低溫度가 零度이고 動物界로보면 그成長活動할수잇는 最低溫度는 種類에따라서 差가 너무만흔고로 一律로말할수업스나 그最高溫度는 亦是 四十五度內外를밧게아니된다。 萬一周圍의 氣溫이 이限界를넘어 더욱더워지면 生物體를構成한 蛋白質이 凝固하고 그 生物의生命을 維持하기 不可能한 境遇가 됨으로 그 生物體는 死滅하게된다。

反面으로 溫度가 너무 내리면 ……命을 維持하기는 困難하게되는것이다。 우리溫帶地方에서는 그最低溫度의 限界를 넘는일은 別로히업스나 겨울에는 언제든지 내리게되는고로 모든生物들이 겨울을 越冬하기爲하야 온갖苦心을하고잇느니만큼 그方法도여러가지가잇다。

一般植物들의 越冬하는方法은 다음機會에 말하기로하고 只今은最先 一般動物界의 越冬하는狀態가 어떠한가를보기로하자 動物界에도 大別하면 哺乳類나 鳥類가튼것은 高等한動物이니만큼 身體의構造도 大端히進化하야 體溫이一定한고로 羽毛가튼것으로써 寒冷을防禦하야 體溫만保持하게되면 體表의冰結될念慮는업는고로 生命에는 關係가업스나 食料가 欠乏됨으로 이것이 또한 一大威脅이 되는것이다

今春各學校入學規定 (四) (但詳細는直接問議하시오)

樓氏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三月六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二日 ▲試驗科目 國語 算術 ▲試驗場所 同校

京城帝國大學醫學部附屬醫院(看護婦)
▲募集人員 約四十五名 ▲申請期日 三月十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三日 ▲試驗科目 國語 算術 ▲試驗場所 同院

平安南道立平壤醫院
▲募集人員 給費生二十名 私費生若干名 ▲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六日至三月二十七日 ▲試驗科目 國語 算術 ▲試驗場所 同院

朝鮮總督府鐵道局(看護婦)
▲募集人員 約二十七名 ▲申請期日 二月二十八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四日至三月五日 ▲試驗場所 龍山鐵道醫院 ▲試驗科目 國語 算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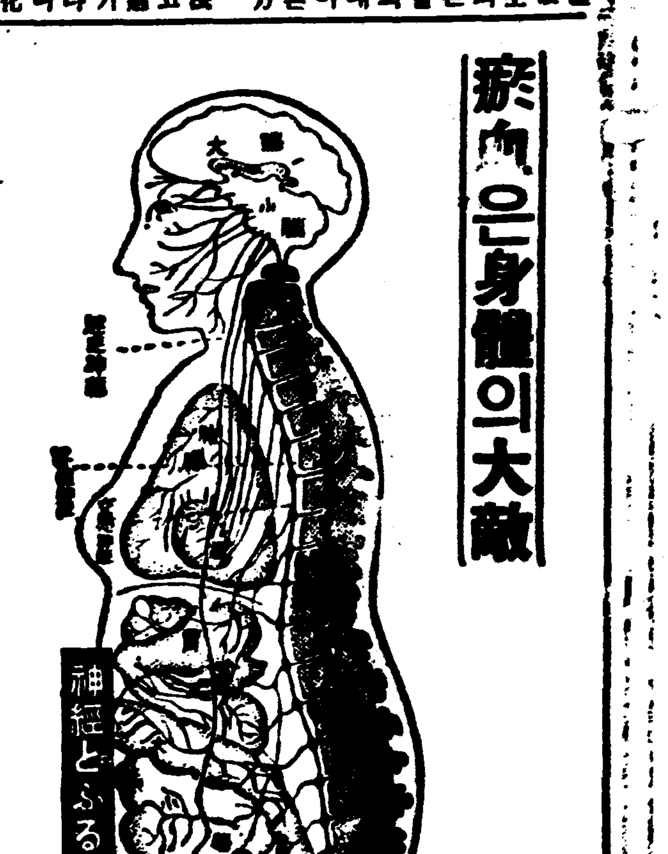
淸州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農科三十名 畜産科二十名 ▲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日至三月二十二日 ▲試驗科目 國語 算術 ▲試驗場所 同校

順川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二月廿八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五日 ▲試驗科目 國語、算術 ▲試驗場所 同校

咸興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三月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六日 ▲試驗科目 國語、算術 ▲試驗場所 同校

北靑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三月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一日至三月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北靑公立職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瘀血은身體의大敵

體毒으로血行이낫버지고
足腰厥冷으로 마디마디가압하
動悸、息切、耳鳴、肩凝痛으로苦悶

高血壓者(動脈硬化症 血壓亢進症)는
瘀血을取하야血行을조케하면은
頭腦도깨끗이明朗해진다

이제부터 치우가미하야 감기에 걸리기쉽고 鳴喉나빨에故障이생겨 特히足腰厥冷으로安眠을못하게되는일이만코 急激한外氣의變動으로動脈은硬化收縮되고 血壓은점점亢進하야 動悸、숨가쁨、眩暈、耳鳴、肩凝痛、手足痲痺、마듸마듸가아프고 神經痛으로因한腦溢血、狹心症의重症을招來하나。 이무서운各症은血行의不順이病源으로 그原因이되는前述한여러가지毒素、即古方醫學의『瘀血』입으로 이것을體外로排泄하야血行을整調함이治病의最短期療法인줄알엇거던 누구나꼭本療法을一讀하고그眞髓를잡어治病의一端으로하여주기를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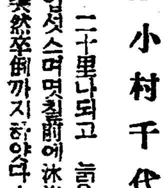
하는機能이잇는까닭이라고한다 그런데우리人間은不名譽스럽게도 自尊心과瘡氣가업는것이다」고예전부터 傳해나려온바와가티 遺傳이나感染이나잇슬梅毒이體內에깁히潛在하고、또한날마다마시는 술、煙草의毒、肉食의毒、尿毒、鉛毒等여러가지原因으로 自然히 血液은濁해지고血行을防害하는까닭으로 新陳代謝機能은衰退하고 病魔를심어주어長壽를못하게한다。

이만것이야 하고安心과 放心을함으로서다시손댈수업는大事를 惹起하는일이적지안타 內閣統計局의發表를 보면腦溢血의 原因되는動脈硬化症을 誘發하는것은 酒毒(알콜毒)卄五%。煙草毒(니코친毒)卄五%。性病毒(梅毒)卄五%。其他卄五%。 요만것이야—하고 放心하는술담배가 梅毒따가튼 病因을만드는것은 놀랄일은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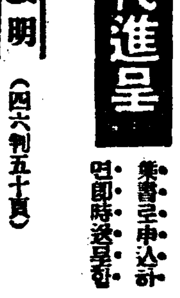
鶴은千年 거북은萬年이라는俗談도잇지만 千年萬年은 조금誇張한말이겟스나 事實은鶴은九十年乃至百年거북은二三百年이라는動物學者의定說이잇다 이와反對로사람은어찌短命한가 學者의硏究를綜合하면鶴이나거북과가튼動物은體力에老廢物이나毒素를恒常排泄하는까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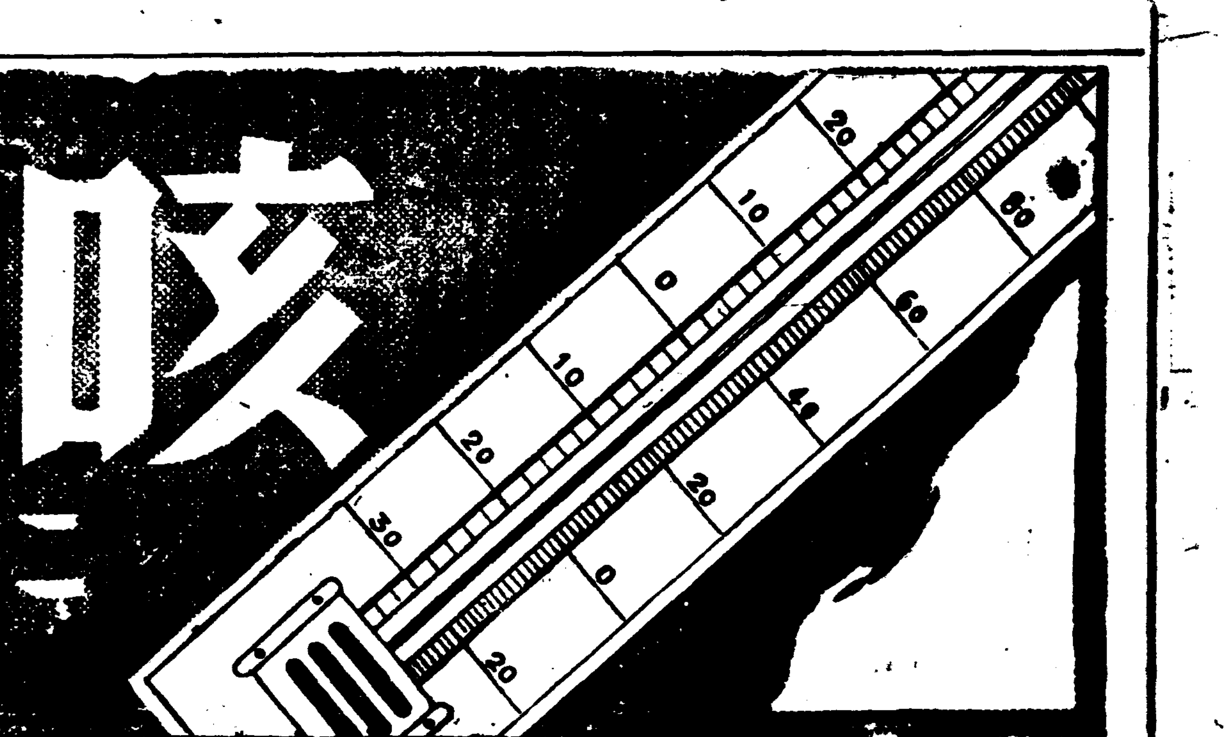
數年의神經痛 足腰厥冷이

滋賀縣 河田甲次郞
(前略)나는數年前에感氣를한것이原因으로病床에눕게되고普通感氣로만알엇든것이 그後腎重肩胛痛으로苦生하고 마듸마듸가압흐며手足이차듸차게되엿다 周圍사람들에게フルチ錠이効果잇단 말을듯고곧服用하엿드니 몃칠못되여 머리가조곰가벼워지고그後繼續服藥하엿드니이제는 肩胛痛마마듸마듸가압흔것도다나엇고、第一괴로웟든 耳鳴도 칼신나어서 무엇보다도 깃븝니다 便紙到着하는대로 五圓짜리藥을代金引換으로보내주시오(後略)

永年의上氣、어질증이줄고 高血壓도펴나어

新潟縣 小村千代子
(前略)가슴나는 上氣、어질증으로조곰만걸어가도動悸와숨이갓버서한번醫師에게診察을바더보니 血壓이라하엿스나 시골이라 醫師에게갈수가업섯스며 몃칠前에 氷浴湯에갓다가突然卒倒까지하야다…即時フルチ錠을먹엇드니 …… 血壓도 平常常態로되엇다

排毒と順血に 主効 フルチ錠
小野眞明先生創製
價 十一日分 一圓 二十二日分 一圓五十錢 五十日分 三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古醫學에서新發明
排毒 除 血液循環と瘀血療法 (四六判五十頁)
無代進呈 必讀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目堀一ノ十 古醫學硏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二八番 振替口座東京六五三〇八番



春風이襲來 喘息 百日咳 感氣 지금이警戒할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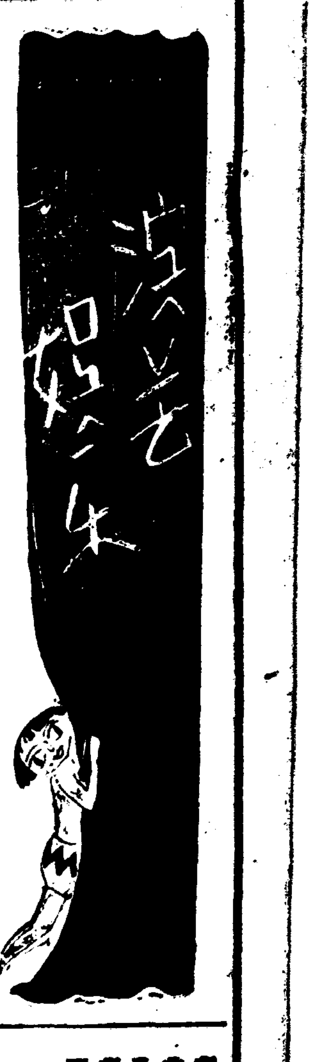
中毒性업는鎭咳劑
ベルマン
베루만

ベルマン은一般기침特히慢性經過를만드는百日咳喘息氣管支炎에조흐며 在來藥과달라조금도中毒性이업는安全良効한기침멋는藥으로 老人小兒에만히賞用된다

特長
1 기침發作을緩和
2 心臟衰弱을防止 呼吸을便케한다
3 中毒업고老人小兒도모도安全
特히…就寢一時間前에服用하면 기침을잡고 잘자게한다

主効
一般痰기침、喘息
百日咳、氣管支炎
感氣、咽頭가다루
肺病기침、

各地藥店에잇슴
大阪·東京 丹平商會



沸騰한人氣超 崔承喜舞踊會
混雜을避하라면 票는豫賣所에서
花環贈呈은미리通知할일

舞姬崔承喜女史가 渡歐의길을 앞두고 京城에서 告別舞踊會를 연다함은 이미아는바이지만 公演當日인 二月二十日 二十一日 兩日의晝間은 市內各女學校團體를爲하야 公開하게되고 一般은 夜間에만 限하게되엿다 그런데 人氣가人氣이니만치 會場入口의 混雜을避하기爲하야 當日은 午後五時부터 同六時까지만하기로 左記場所에서 豫賣하게되엿스니 豫賣所에미리 會員券을 사두는것이 第一便할것이라한다
鍾路方面―和信案內所 京城樂器商會、山口樂器鍾路支店
本町方面―三越 三中井、日本樂器會社 아사히樂器店 鈴木樂器店 레ー트軒
●會員券―一層一圓五十錢 二層二圓 三層二圓

◇ 그리고 崔女史의 어떤公演을 莫論하고 花環、花束이다 리(?)贈呈하는事이로 대단感謝한노릇이나 全部를 陳列하기가困難한 즉 贈呈하실분은 미리京城府松月町百十一의四號 崔承喜後援會로 通知하기를바라며 定數에達하면 집중하리라 拜辭하겟다한다

採算無視의 天然色映畫
實用化無望

科學의나라獨逸에서 오래전부터研究하고잇던 天然色映畫는요 지음와서 거이完成되엿스나 實地에採算이 서지안어서 實用化될것이 疑問으로되어잇다 이푸로세스는 製作技術로는 다만렌스만을 가릴께우면 되도록되엿스나 靑黃의實用性大色彩撮影畫과 其他技術家의 裏聲等에依한製作費의 增加는 엇지할수업게되엿다。코피ー푸린트의 코스트는普通映畫의 約一割이나 비싸고베가리보의 푸린트는約二倍나비싸게될것이다
이로말미아마 製作方面으로서는 當分間 實用化하지못하며 常設館側으로볼때는 映畫館스와새로운 카ー본의現在의것以上으로굿세인反射力을가진 스크링을 必要로하므로 實用이너무만히 들게되므로 發明國인 獨逸만하더라도 이裝置를全國의 常設館에 裝置하게된다면 그費用이 一七五八六、〇〇〇마리크나들어야할것이며 一九三六年度 興行收入의約七分이업서저야된다 이밧게 觀客의評判도 그다지 조치못하므로 이러저러天然色映畫는 實用化될可望이업다●

"歌舞劇의밤" 오는十五日부터
漢城券番演藝部

市內漢城券番演藝部에서는 陰曆正初를期하야 「歌舞劇의밤」을 開催하기로 되엿다
오는二月十五日(陰一月五日)부터 十七日까지 府民館에서 열이게되엿는데 同券番에서는 晝夜로 練習中이다 더욱얼마前에 同券番에 入籍한 申一仙도 여기의 歌女劇에 出演케되엿스며

라디오

九日(火曜)

◇午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미끄름 二、獨唱 싸락눈(金英順) 三、齊唱 수레 四、獨唱 봄이왔건만(吳順福) 五、齊唱 눈 六、獨唱 등불새(康南淑) 七、齊唱 꽃밭 八、獨唱 갈닢피리(徐載鳳) 九、齊唱 옛이야기 伴奏 金英順 新明學院兒童
◇同六時●(山)登山山熊(テキスト五四頁) 安齊徹(第一放送)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金德文
◇同七時三〇分(京) 講演 칸트祭에當하야 崇專教授 朴致祐
◇同八時 流行歌 一、南國의사랑 二、「港口의一夜」追憶篇 三、青春도서러워 四、荒野의달 五、相思의하로밤 六、마음의戀歌 鮮于影心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古談 "빛나는將星" 車青吾
◇同九時(東) 室內樂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曲伊品一의 第一…하이든 作曲 二、同 伊品一의第五…하이든 第一바이올린 鈴木鎭一 第二 同 鈴木喜久雄 비올라 鈴木秋良 첼로 鈴木二三雄 鈴木쿠아르텟트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東) 青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舞臺劇
◇同九時(東) 室內樂

十日(水曜)

◇午後〇時五分(名) 管絃樂―名曲練習所로부터中繼― 一、歌劇「…」 …中에서 二、가、보는것―「…」 …나、보는것―의夢 一、歌劇「…」 어디로가느냐의夢… 雪중카ー豐穰으로作曲 指揮 早川彌左衛門 名古屋交響樂團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妊娠中에생기기쉬운病 尹泰權
◇同三時一〇分 (東)
◇同六時 家庭의時間 (第一放送)
◇同六時 偉人이야기 에디슨 沈亨弼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講座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婦人講座 徐恩淑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斷想" 一幕―안룡제作― 配役 츄ー브코ー프…(地主)…… 朴澳守 나라리야……(딸)…金寶映 로ー모프……(客)…吳淳泳 放送劇友會 演出 黃地立 效果 韓松亭
◇同八時四〇分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平調歌 三、제비가 ·尹一枝蓮 朴玉姬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沈淸歌中 皇城올나가는대 鼓手 韓成俊 朴綠珠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名) 管絃樂
◇同六時(大) 兒童劇
◇同六時二五分(城) 講座
◇同七時三〇分(東) 木琴獨奏
◇同七時四五分(東) 童話
◇同八時(東) 歌繪卷
◇同八時四〇分(東) 漫畫劇
◇同八時四〇分(東) 和洋合奏
◇同九時(東) 物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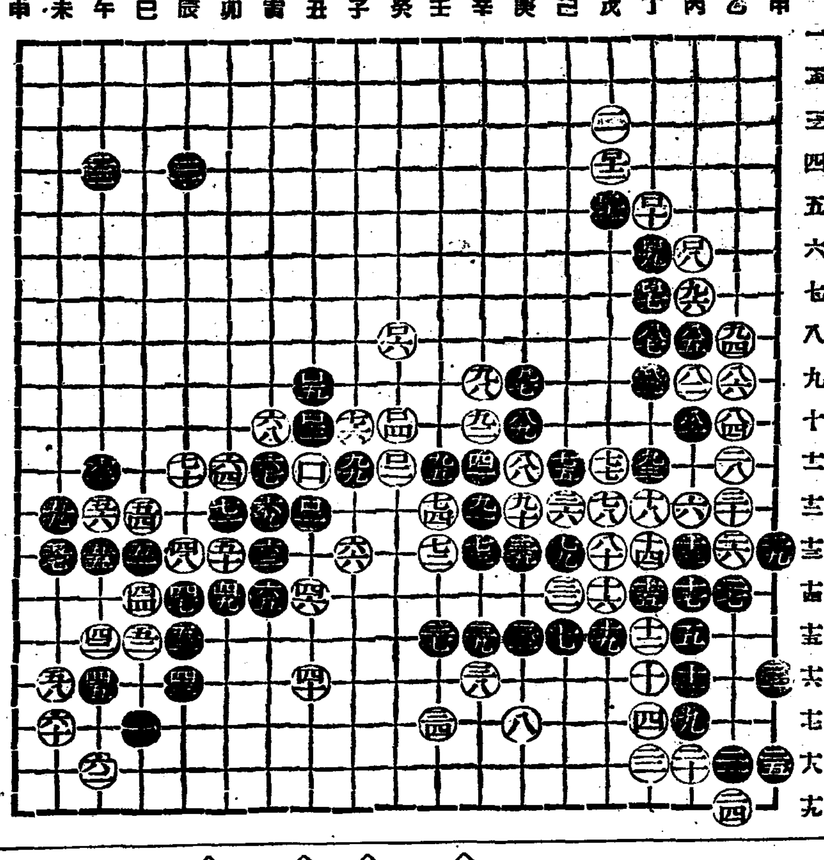
十一日(木曜)

◇午後〇時五〇分 雅樂 ―李王職雅樂部로부터全中― 一、獻天壽 二、其壽永昌之曲 李王職雅樂部員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同一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三〇分 女子中等學校音樂會(邦語)―府民館大講堂으로부터中繼―
◇同六時 兒童과先生의時間(第一回) 一、君が代(齊唱) 梅洞公立普通學校四年女子八名 二、挨拶『兒童과先生의時間 放送開始에當하야』 漢洞公普校長 市川榮三 三、讀本模範朗讀 1、紀元節(讀本卷六第三十一課) 三年擔任先生과兒童 2、新日本(讀本卷十二第二十八課) 六年擔任先生과兒童 四、唱歌 一、齊唱 讚揚皇國 五年女子七名 二、水車 三年女子八名 피아노伴奏四年女 孔朝瑛 三、나의피아노 二年女子九名 피아노伴奏 山崎先生 四、紀元節 四年女子八名 피아노伴奏 李栽玉先生 피아노伴奏 熊澤先生
◇同六時三〇分 紀念講演 紀元節을當하야 李王職禮式課長 李謙習
◇同七時三〇分 漫談 『南無阿彌陀佛』 黃材景
◇同八時 (平)懸心歌外 吳明姬 金鼎心
◇同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바이올린協奏曲 E短調作品六十四…멘델스존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몰토·아파쇼나ー토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알레그로·몰토·비바ー체 피아노伴奏 桂貞植 朴實淑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樂 三、弄界樂 四、界樂 文明仙 蔣命祚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大連으로부터 謠曲 一、君が代 二、…

×××××× 本社主催 ××××××

圍碁對局譜

=7=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九七 庚의九
○九八 辛의九
●九九 子의十一
○一〇〇 丑의十一
●一〇一 癸의十二
○一〇二 丑의十一
●一〇三 丑의十
○一〇四 癸의九
●一〇五 丑의九
○一〇六 丑의八
●一〇七 癸의七
○一〇八 丁의七
●一〇九 丙의六
○一一〇 丁의六
●一一一 丁의五
○一一二 戊의五
●一一三 戊의四

觀戰者談

黑九九(子十一)은 緊切時宜의 感이有하다
黑百(丑十一)은 百四에尖出하야變化를求할도一理가有하나 其後囘復難이多함으로 未安의點이有하다 지니 槪論的感想을 말하면 黑百(丑九)白百一(癸八)에至하야는 割鴻溝의感이有하니 取捨得失은 輕易을不許하나바 伊後經過는 互相手腕을 拜觀코저하노라
白百八(丙六)은 百四에 直指할지라도 遜色이 無할지며 黑百九(丁六)는 庚七에應하야 後來의 白十四에 衝風의機會를 保留함이 得宜가안일가
黑百十一(戊五)白百十三(戊四)는 此際不可避也

어린애기의安全과幸福을保證하는上揭商標에注意하십시오、수리표우유는育兒用으로安心할수잇는唯一한煉乳입니다

煉乳之元祖
ワシミルク
수리표우유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奨

ノーシン 노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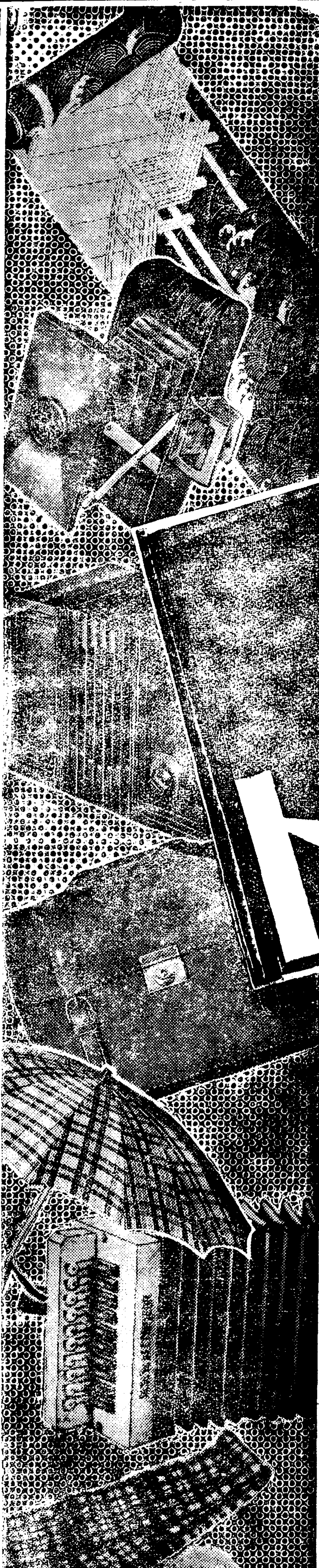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끌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튼때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만일頭痛으로 똑을보는때가게시거든지마시고노ー신을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팟는가? 하는듯깁홀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고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몸에지니시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우리同胞에 게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와잇사오니 잘못사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登錄商標 帽子印잇는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卅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朝鮮日報安岳支局
振替京城七二五〇番



●葉書로當籤!
懸賞

●젊은이들이실허하는脂漏性脫毛症에效果잇는毛髮榮養素―고레스테린을配合한 劃期的포마ー도金鶴은 그倍나强化된養毛效果로一擧 대머리의病源을防止하고 그뒤여난 發毛作用은毛髮에適度한撓性과 漆黑美를준따

毛生호루몬·고레스테린配合
金鶴 ポマード

—課題—

毛生ホルモン・コレステリン配合○○ポマード

●解 答 上記文句의○○中에 들어맛는文字를 알어내시요
解答은 똑똑하게쓰시오

●方法 官製葉書裏面에 右의答과一、二等의 希望景品及 住所氏名을써서 보내시오
●正解者 多數인때는 抽籤하야當籤者를決定함
●締切 二月二十八日(同日附消印有效)●抽籤 三月上旬(新聞、警察立會嚴正抽籤) ●發表 三月中旬(本紙上) ●景品送附 發表後一週日以內
●送先 大阪市西區阿波座中通一丁目 金鶴ポマード本舖サービス係

—景品—

一等 三球ラヂオ受信機 一臺
小型寫眞機 一個
鍋紗友禪 一反
內一品 一五名

二等 流行皮革草履 一足
革製抱鞄 一個
手風琴 一個
晴雨兼用洋傘 一本
紳士用マフラ 一枚
內一品 一五名

三等 金鶴化粧品セット一圓 二十名
四等 金鶴チック一本宛 二百名
五等 旅行用金鶴石鹼一個宛 五百名

本舖 株式會社野村鶴店

鐵道敷設在邇

一千萬圓資本金으로計畫코 期成會組織、出願準備

統營↔馬山 統營↔晉州

【統營】통영—마산간(統營—馬山間)통영—진주간(統營—晉州間)에 부설될철도를목표한통영진주철도기성회(統營晉州鐵道期成會)에서는 소화구년이래 적극적운동을 계속하야 오든바드디여 일천만원의 자금으로 동철도주식회사 창립준비공작이완성에 가까웁게 되엿스므로 그기성회고문 산구정(山口精)씨는 요지움에 철도국을 비롯하야 경성방면의 발기인제씨를력방하고도라와서 방금출원수속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늦저도이달 하순에는 정식으로출원을하리라고한다

公園隣接地에 墓地私設反對

【慶興】고흥시내 공원지대의련접지에 일개인의사설묘지를설정함에대하야 시민의반대가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이월삼일밤에 공직자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대회를개최하려하엿스나 경찰의금지로 중지되고 지난륙일밤에 계상회공직자대회를 열고 시민의총의를대표하야 관계당국에 반대결의를하야 다원키로하는동시 래십이일에 상도진정코자 다음과가튼 진정위원을선거하고 산회하얏는데 본사설묘지는 공중의 위생상 조치못할뿐외라 수천명래 정신적으로 신성히지켜오든 귀중한 지대를 일조일석에 묘지화함은 사천시민의 정신상중대한관계가 잇다하야 절대반대할 것이라고한다

◇陳情委員은 申常休 權鍾大 山道良一 金善洪 手塚秀吉

에 비하여 혁신감소되엿스니깃 분혀상이다 회재란 각자가 부주의하는데서 생기는것이니만치 작년도 진남포경찰서에서는 신년도에 회재가 만혀짐에 비치여 소방기구를 일층확장하는일방 일주일에한번식은 반드시 방화선전(防火宣傳)을 단행하엿스며 또한 회재의원인이 연돌(煙突)의 불완전한데서 만히 생기는것임으로 남포서에서 연돌상황을 조사한결과 개조를요하는 연돌수가 이천륙백삼십사개소임으로 방금 적적 개조중이라는바 이것이 완전실행되는때면 회재는일층감소될것임으로 일반가정에서는 평소회재를 주의하는일방 연돌개조를 속선실행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慮榮에들뜬村婦 誘惑되여亡身만

눈물짜며남편(男便)으로

【大邱】도회병(都會病)에걸린시골녀자가 대구로뛰여나왓다가몹쓸사람에게 유혹되여 폭행만당하고— 지난칠일밤 오후열시쯤되여 대구서원이 구세말경계차로 부내대봉정 사백륙십이번지압흘 밀행할지음에 녀자의 비명이밧그로 새여나오므로 이를드른 형사들은 이상히여기고 뛰어들어가본즉 그녀자는경주읍황오리(慶州邑皇吾里)리춘일(李春日)(假名)(二二)이라는녀자로 도회가 살기조타는말만듯고 직업을차저 지난칠일오후 여섯시쯤되여 시골처녀의몸으로 복잡한도회지로 뛰여나왓스나 갈곳업슬지음에 박봉보(朴奉保)(三三)란자가 이것을보고 저는려관을경영하고 잇는터이니 무료로재여줄터이며 적당한 직업까지구해주겟다고 세상에 물몰지안는순진한시골처녀를 꼬여가지고자기집으로 다리고가서 녀자의몸을 …을 가하엿스므로 그때에 비로소 속은줄알고 그가티 울고잇섯다한다 그러자는 경찰서에 통지되여 방금취조중이라는데 이처녀는눈물을더려 편책으로 경주로도라가겟다고한다

中央線

馬龍驛設置運動

【楊平】중앙선(中央線)이 양평읍을통과함에대하야 양평군갈산면마룡리(楊平郡葛山面馬龍里)는지리적관계로 보던지 기타회물집산관계로보아 절대로 중요지점에 당하므로 그면민은 물론기타일반도 그곳에는 중요역이될줄믿고 잇섯든바 정거지상으로발표된이십일개소 중요역을 보면 전기마룡리는 역으로결정되지안헛슴으로 당해면에서는면민과 강원도방면에서까지 한천여명의 연인한진정서를 가지고 대표자양호석(梁浩錫) 정영진(丁英鎭)량가 상경하야 당국에 진정하얏다한다

卅三個所二百"키로"의 林道開發을計畫

慶南山林課서立案

【釜山】경상남도 산림과에서는 림산물개발 림정의개척(林利增産開拓)을 도모하고자 소화십일년도부터 림도개발(林道開發)에 대하야 조사연구를 하는일방 그간 약칠개월간에 덕유산(德裕山)약 시칙키로를 개발하얏고 삼개소에 연장이백키로에 달하는 도로를착수할 예정개소는 삼십삼개소라한다 한다고하는데 금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지방비의허하는한 적극적으로 착수할계획이라한다

安東縣地方에 移住農民漸增

【安東縣】평북대안안동현부근(부속지외합)에는 소화십일년십이월말현재에 이주농민이 일천사백팔십일호에 인구오천사백팔십이명인데 전년에 비하면 이백륙십삼호에 인구일천삼백칠십삼명이 증가되엿다는바 현재지방별인구를보면

滿洲街	六〇〇名
中興鎭	一二七
三道浪頭	二、五五八
大東溝	一、一〇五
鐵甲房身	一九一
九連城	一〇七
五龍背	三三四
湯山城	三三二
合	五、四八六

으로 그농민들의 수전경작면적과 수확고를보면 수전면적이 일만일천구백팔단보(段步)에수도(水稻) 수확이 삼만구천오백오석이나된다 이를다시지방별로보면

地名	畓面積	收獲高
三道浪頭	五、七七〇反	一三、六二四石
大東溝	三、〇〇〇	八、〇〇〇
鐵甲房身	一、〇〇〇	三、〇〇〇
九連城	三〇〇	六〇〇
五龍背	一、三〇〇	四、七〇〇
湯山城	六〇〇	二、五〇〇
合	一一、九〇八	三九、五〇五

寶城에强盜

二名이侵入·金品奪去

【寶城】지난륙일 오전두시에전남 보성군 로동면 학동리(寶城郡蘆洞面鶴洞里) 전경록(田敬祿)씨집에 식칼을든 두명의강도가 드러가서 식칼을 번쩍거리면서 위협하야 현금십원을 강탈하엿다는 보고를받은 동면주재소원은 물론 보성경찰서에서 서원을 비상소집하야 범인을 체포코저 활동중이라한다

火災의原因은 煙突不備에서

【鎭南浦】무엇보다도 무서운것은 불(火災)! 작년도 진남포부에 회재란은 어떠한가를 보면 발생건수사십사건으로 손해액삼만구천이백구십사원인데 십년도 손해액삼십칠만삼천일백구십이원

銀貨僞造團十名

最高四年、最低八個月役求刑 言渡는來十三日에

【咸興】오십전짜리은화 일백칠십매를위조하야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쓰다가 작년봄 경찰에 일망타진된 일당십명의 공판은 륙일 함흥지방법원에서 곡(谷)판사주심 사판여로 개정되야 오후여덜시까지 전반의 심리를 마첫는데 피고들은 모두 사실을 시인하얏고 검사로부터 아래와가티 최고징역사년 최하팔개월의구형이잇섯다 그리고 판결언도는오는십삼일이라고한다

▲金鳳學 四年▲李漢模 四年▲金振輝 三年▲朴廷翰 二年▲洪奇燮 同▲金鳳碩 同▲金相玉 同▲洪心得 一年六月▲李春善 一年▲李孟三 八月

白晝出札口에서 大金窃取한者 即席에서就縛

【寶城】요사이 구년말을 앞두고 경찰당국은 물론 특별경계에전력하고잇스며 기타은행 회사 각상점에서는 여러가지로 연구하야 범죄방지에심히 노력하고잇는바 지난사일오후두시전남보성역(全南寶城驛)에서는 동군로동면명봉(蘆洞面鳴鳳)금광소원이 역출찰구에서 승차권을 사고잇는데 그겨레잇든장흥(長興)출생정일동(鄭日同)(三〇)이가 그금광소원의 회중에든 현금오백팔십원을 훔쳐가지고 다라나는것을 동역주재순사가 이를발견하고 경찰서에전화를거러 서원이일제히나와 이를붓드러서 목하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平北道會召集

來二十六日開幕

【新義州】토목공사 교육사업등 미증유의 신규사업을 보게된평안북도 소화십이년도도회(道會)는 오는이십륙일부터 개회예정이라한다

三千餘細窮民에 同情金品配給

【群山】군산부내에잇는 일반빈궁자들에게 다소나마 동정을하기위하야 군산경찰서에서 얼마전부터 일반독지가에게 동정금을 거두어서 그로써 지난팔일군산공회당에서 일반빈궁자에게 매인전 현금일원식과 백미(白米)를골고루나누어주엇다는바 구제를받은 세민은 륙백삼십륙호에 삼천삼백구십오명이엿섯다 한다

風浪에激突되여 "室蘭丸"沈沒

船員十二名救助·損害二萬餘圓 統營巨濟島附近서

【釜山】지난칠일 오후두시경에 문사(門司)산양기선회사(山陽汽船會社)소유 실란환(室蘭丸)(二二八噸)이 석탄을 만재하고 좌하강도(佐賀江島)에서 마산(馬山)으로 향하든 도중 통영군거제도 남방 매물도(每勿島)부근에서 격랑에 부듸처서 배고리가파괴되며 침몰되엿는데 선장금자춘웅(金子春雄)이하 십이명은 그부근을 통과하든 대판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소유 명리환(名利丸)에 구조되엿다 손해는 선체약 이만원, 회물약삼천원가량이라한다

妻家에칼부림

살자고졸라도안듯는다고 妻、丈人、丈母에行悖

【釜山】지난륙일오후열시경 부산부 목도 청학동(牧島靑鶴洞)사는 김을복(金乙福)(三五)이가남부민정(南富民町)사는 처가에가서 면도로 자기안해 안덕면(安德面)(二六)과 장모 윤답이(尹答伊)(四五)의 오른편귀를 찔른후또장인 안모(安某)(六五)의 얼굴에 중상을 입히엿는데 이급보를접한 동정파출서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전기 김을복을 인치하야다가 상해죄로 엄중히 취조를하고잇다 그원인은 김을복이가 처안덕면에게 동거하자고수차 요구하얏스나 듯지안흠으로 자기장모장인에게도 수차 동거하도록 보내달라고 요구하엿스되 종시 듯지안흠으로분개한 남어지 그가티 폭행을한 것이라한다 그리고 피해자삼인은 부산부립병원에 입원하야치료중이라한다

愛妻가주는저녁밥

달게먹자나앗! 양잿물 男便의精力에시달린少婦의짓

【大田】무지한남편이 나어린안해에게 성교를 너무나강요함에 견듸지못하야 철업는마음에 그의남편을 죽여버리면 이와가튼괴로움은 겪지아니하리라고 남편의먹는밥에 양잿물을 섞거먹인 비극한막—그여성은 천안군수신면장산리(天安郡修身面長山里)조원하(趙元夏)라는 방년십칠세의 소부로서 세살먹든해에 량친부모와 사별하고 수원고아원(水原孤兒院)에 드러가 우금까지 자라난몸으로 작년십일월에 림정봉(林正鋒)이라는 남자와결혼하야 동거하야 오든바 남편되는 정봉은 어린안해에게매양 성적으로 도저히 감내할도리가업서 고민하든끄테 지난일월이십일밤에도 남편에게 강제적으로 정교를 당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보기가 실혀지 죽여버리겟다고 결심하고 지난 이십오일저녁밥에 양잿물을섯거먹여죽이랴고한것이 발각되야 방금경찰의취조를 밧는중이라고한다

大田驛構內擴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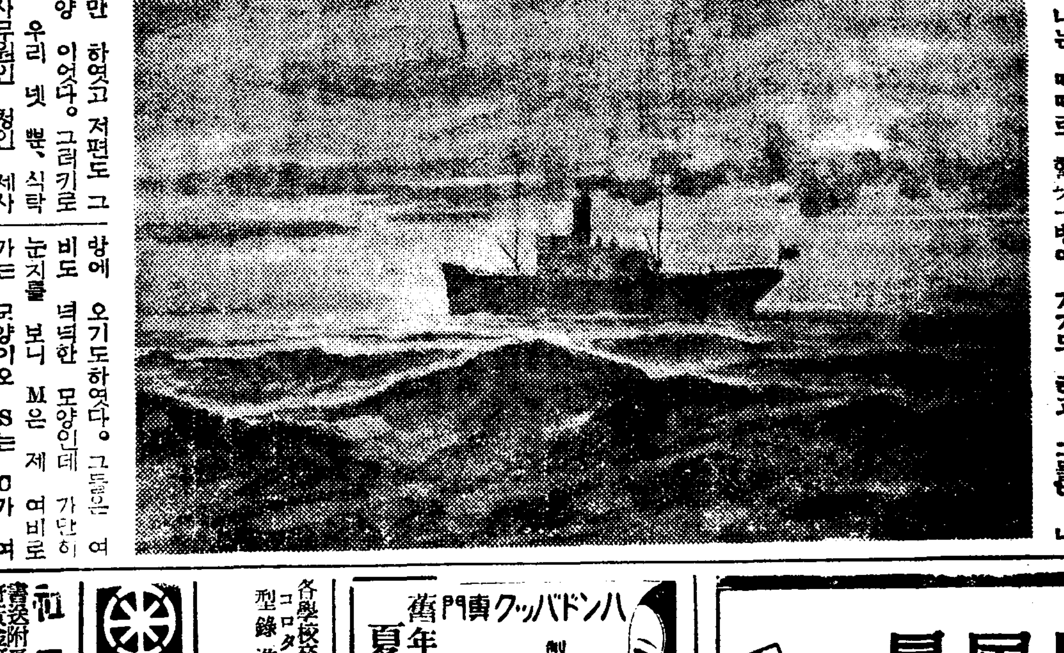
五個年計畫으로

【大田】대전역은 호남선의기로이요 중부조선의 중앙인만큼 화교통이 날로늘어가고 려객의 왕래가 번다함에따라 역구내가 협착하야 이로인하여 업무상복잡다단하게되야 대전역에서는 소화십이년도부터 오개년계획으로 역구내를 대확장하기로되엿다

農民돈十圓騙取

夫婦共謀하고서 안해팔어다가翌日에奪還

【醴泉】례천군읍내(醴泉郡邑內)중앙도로에서 지난칠일에 생긴일이다 이주인공은 경북상주(慶北尙州)읍내에서 일정한 주소가업시 도라다니는 림선일(林善日)이라는 마흔한살된 사나이로서 약일년전에 권분순(權分順)(三九)이라는녀자를안해로 마저가지고 방랑생활을하다가 지난삼일에 례천으로 와서 안해팔어다가 례천군도전동(稻田洞)에사는 림성근(林成根)(이상모다가명)에게십원을 밧고팔엇는데 그후권분순은 남자가 성질불구자라는리유로 다시 본남편되는 림선일에게 와서 림성근을 배척함으로 두남녀가 공모하고 돈십원을 소겨먹은것이라하여 그와가티 길가에서 활극을 일으킨것이라한다



그의自叙傳 【50】

長篇小說 長白山人作 照超畫

방랑의길 (四)

거진 서서, 새우다십이 하고 아침에 갑판우에 나와 보니 배는 아직 떠나지 아니하엿는데 갑판 우에는 어름이 얼고 용암포쪽 산들에는 밤人동안에 하야케 눈이 뎁혀잇엇다. 바다는 놀실거리고 바람은 여전히 마스트를 윙윙 울렷다.

아침 식탁에서 나는 조선사람인듯한 세 손님을 만낫다. 이때에 조선 사람들은 서로 조선 사람을 무서워하는 편이엇다. 지금도 그러치마는. 그래서 피차에 「저놈이 조선놈인 모양인데 어떤 놈인가」하고 서로 힐끗힐끗 정탐하는 눈을 보내는것이엇다.

그 세 사람중에 한 사람은 나와 갈이 청복을 입엇고 두 사람은 양복을 입엇엇다. 그 청복 입은 사람이 암만해도 낫이 익은데 섯불리 입을 열수도 없어서 나는 때때로 힐끗 보기만 하엿고 저편도 그러하는 모양이엇다. 그러키로 손님이라고 우리 넷 뿐, 식탁에는 배 사무원인 청인 세사람 아울러 일곱사람뿐인데 언제까지나 말이 없이 시침이를 따기는 참 거북하엿다.

쿵쿵하고 엔진 돌아가는 소리와 떨그덕떨그덕 키스줄 울리는 소리가 들렷다. 배가 떠나면 경찰의 눈을 피해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을 놓는 것이엇다. 나도 마음을 놓앗거니와 세 사람도 마음을 놓는 모양이엇다. 인제는 영사관 경찰의 손에 붓들려내릴 근심은 없는까닭이엇다.

배가 떠나는것을 보고야 양복입은 쾌활하고 잘 생긴 친구가 먼저 입을 열어서 나를 향하야

『남궁석씨 아니시오?』

하고 말을 붙엿다.

어떠케나 시언한지, 그 무서운 침묵이 깨어진것이 어떠케나 시언한지, 나는

『네 그래요. 나 남궁석이야요』

하고 넘어도 깃버서 저까락을 떨어트렷다.

『나 M이야요. 우리 동경서 만낫지요.』

저간다 Y군 집에서 만낫지요. S허구 점심까지 먹지안헛어요?』

하는 M의 말에 나는 오년전일이 환하게 기억에 오름을 깨달앗다. 그의 말에 S라는것은 그 여자다. Y의 외종매라는 그 여자다. M도 서로 척보이엇다면것을 기억한다. S가 M더러도 오빠라고 부르던것을 기억한다. 스끼야끼를 먹고 S가 밥을 뜨고 하던 그 때에 그러나 M도 변하엿다. 그러케 어엿븐 홍안미소년이던 M은 벌서 풍파 겪은 어른맛이 잇엇다.

『네, 아, 이런』

나는 이런 말밧게 더 할수가 없엇다.

M은 먼저 동행하든 친구를 소개 하엿다. 그는 C라는 사람이오 다음에 청복입은 친구를 소개하엿다. 그는 S라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이름난 사회주의 이론가가 되엇다가 부산에서 물에빠저서 자살한 사람이다. 만일 이사람들의 본명을 말한다면 여러분중에서는 『아 그사람』하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다.

이로부터 나는 선중에서 적적하지아니하엿다. 내가 그들의 방에 가기도 하고 그들이 내 방에 오기도하엿다. 그들은 여비도 넉넉한 모양인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 M은 제 여비로 가는 모양이오 S는 C가 여비를 써주는 모양이엇다. S는 퍽 재조잇게 말하게 생긴사람이나 좀 침울하고 C는 둥둥하고 호덕스럽게 생긴 사람이엇다. 재조잇는사람은 아닌것갈앗다.

나는 M에게서 S양의 말을들은것이 괴로웟다. 내 잠든 옛기억을 일깨워준것이엇다. 혼자 추운 내 방에 잇노라면 S의모양이 눈 앞에 선하게 나타낫다. 아마 벌서 누구의 안해가 되엇을지 모른다. M이 저만큼 변햇스면 S도 어지간히 변햇을것이다. 그 가느스름한 눈, 한일자로 건너 묻은 불그레한 입, 좀 가날핀듯한 몸— 그러나 모도다 옛 기억이다. 그러나도 이러케 고적한 항해는 추억으로 양식을 삼는것이다. 나는 박대령의 딸이 남편을 원망하고 울던것을 생각하엿다. 그리고 오다께비상을 생각하엿다. 우현을 그리고 생각하엿다. 우현은 인제 군서기가 되어서 금테두른 모자에 금장식한 칼을 찬다. 언제 한번 만낫을적에 날더러도 군서기가 되라고 권하엿다. 그는 날더러 혼인하라든 것이다. 그 처자와 관계를 맺어서 그둘째 마누라가 간수를 먹엇단 말을 들엇다.

舊曆新春演奏大會

二月十三日(陰正月三日)부터五日間 於 六層호ー루

二月十日부터現金三圓以上買上하신분께招待入場券進呈

謹告 二月十一日、十二日(陰正月一日、二日)은舊曆新正을慶祝하압고자臨時休業하오니海恕하심을伏願하나이다

和信

宿醉 로머리가무겁고、어지럽고、불쾌한때에는 ノーシン ◇노신을服用하라◇憂鬱이消散되여爽快하게된다◇

待望의傑作盤 特別發賣 모ー던風景 歡樂의春情 이스터대평·鍾仙編 태평레코ー드

ハドソンクッパ東門舊 年末선사는 夏屋핸드빽을 製造部 夏屋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局七四九〇番

朝報案內

社員 募集學務中等學校程度以上、若干名(應募者書類送附アレ、面會日通知ス)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三井物產京城支部 生命保險

鑑定 吉凶을判斷코저하시는분은! 아메다닌 代運命을鑑定하시려는분! ...

各學校卒業記念寫眞帖作製印刷 コロタイプ型錄進呈 雀沼寫眞印刷所 咸興府軍營通リ(一) 電話長一五七番

特約店 鮮一樂器店 京城鐘路二丁目 電話光化門五七七番

募集 寫眞에多少經驗잇는才二十才부터三十才까지의女子部員數名採用本人來談 鐘路二丁目中央基督教青年會館寫眞部 電光二一七五

社員 至急募集年齡二十三才부터三十才까지中學校卒業又는高等程度旅行마지않는百圓收入可能每月百圓乃至二百圓 京城本町二ノ三

印刷職工採用 植字文撰熟練者三人見習二人採用詳細ハ履歷書持參 京義線 ... 印刷工場

生年 月日과 錢切手十枚를 ... 京城府 ... 申石

恩給 最大限度로特別立替 ... 京城府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開業五週年紀念 運命

오랫동안청국남북경상해 각지에숨기어 ... 청국에유명한 일년신수 ... 요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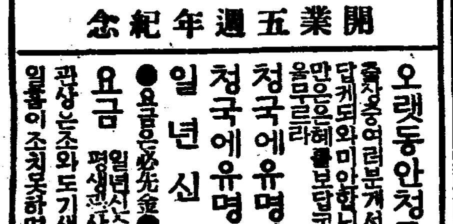
運命鑑定處 京城府櫻井町一丁目四六 電話本局三四二六番

우리正月歲拜에 어린이가조와하는 「榮養菓子 不老草 ミルクキヤラメル」를드립시다

登錄商標

000916

咸聖商會製菓本店 京城·東大門市場 工場



スキーポマード 艶出し

生徒募集 朝鮮總督指定 信聖學校(平北宣川邑) △第一學年約五十名 △出願三月十五日까지 △試驗三月二十二、二三、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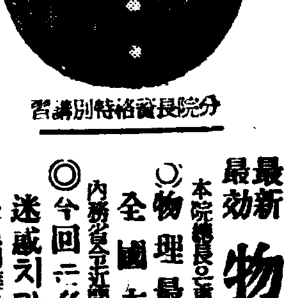
京城園藝專修學園生徒募集 募集人員五十名 出願期限 三月三十一日까지 入學資格 普通學校(授業年限六個年)卒業者로 滿十四歲부터 滿十八歲까지 考查期日 四月五日口答試問及體格檢查를行함 京城府新堂町二四番地ノ五五(電話本局五六六二番)

京城府壽松町 中東學校生徒募集 出願 ◇本科(朝鮮總督府指定)一年約百名◇豫科(本科一年程度)約二百名◇速成科(普校五六年程度)約八十名 本科三月二十三日限 豫科三月二十三日限 速成科四月六日限 試驗期日 ◇本科三月廿六、廿七、廿八、廿九日◇豫科四月一、二日◇速成科四月七日

宣川保聖女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約百名 ▲第二學年補缺生約十名 ▲出願三月二十日까지 ▲試驗四月一、二兩日

松都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生徒約百五十名 出願期日三月十五日迄 試驗期日 三月二十二日부터五日間 (開城府)

生徒募集 京城測量技術講習所 ◎科目 土地測量學、規定、法規、註記、製圖、伸縮法、算學、數學、滿洲語 夜學部 補缺生募集 出願 三月二十九日 開學 四月一日 六ケ月卒業 學則請求要二錢切手 京城府蓮建町一五九 電光二七八九番



分院長資格特別講習

最新最効 物療電醫責任養成 本院院長은東京電氣醫學校卒業 ◎物理最効醫學全科를短期卒業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今回本院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습 逃蔽치말고배워서生涯成功의길을迷하리 內容規則進呈 朝鮮高等電醫總本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和信 二月九日부터二日間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보아라 大FOX 誕生의 凱歌 ◇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不朽名作 헨리킹氏 아메리카祭 主演……자넷트게이나孃 윌로자ー쓰氏 루에이아ー쓰氏 사리아이라ー스氏 全十卷 現代活劇 大學의 蠻柄紳士 大都映畫社超特作品 ハヤブサヒデト監督主演 助演……大河百合代孃 時代劇 怪猫佐賀의夜櫻 大都映畫社超特作品 監督……石山稔氏 主演……阿部九州男氏 水川八重子孃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一三三番 三日ヨリ八日間 晝夜三回 全世界待望映畫 日·獨合同作 新しき土 早川雪洲 小杉勇 原節子 共演 パラマウント超特作 フレットマクマレイ主演 丘の一本松 東日·大每 國際ニュース 大人一、〇〇 小人 七〇 最新式 溫風暖房完備 ワカゲキ

二月五日부터特別大興行 金永煥氏主幹 星座金永煥一行公演 每夜午後七時半開演 藝題每日交換 金永煥作 洋 黎明에沙漠 全一幕 活劇 人間奇路 全一幕 史劇 北原城에서 매즌사랑 全三幕 悲劇 새해전날밤 全一幕 其他餘興 ▲幕間 땐스、 넌센스 獨唱、合唱、舞踊 ▲幕間出演者 吉聲波、金惠明、馬敬得、金銀鋼 盛裝한衣裳、雄大하셋트 上往十里町 光武劇場

달마지一生涯最後의決死의快作!! 二月十日부터超特別大興行! 리차ー드달마지프로超特作全發聲 名匠노ー엘메ー슨氏監督作品! 달마지肉彈王者 跳躍王리차ー드달마지氏大飛躍 가도루드매ー싱가ー孃助演 肉彈亂飛! 狂從!! 死線의飛躍이몇번이나되며 眞人이職傑할만中冒險이映畫史中에잇섯는가!! 本篇은달마지自慢得意의名演技으로推賞하는世界的名品이올시다 冒險味爛의總決算이다 우리滿場에 드래곤 올 自殺合戰 마소ー의스리ー소氏 대드러ー든빅 월푸氏 共演 P·C·L超特作全發聲 原作脚色山本嘉次郞 エノケンの吾妻錦繪 岡田敬氏監督 榎本健一氏主演 中野かほる 宏川光子 山縣直代 二村定一 助演 江戶ッ子三太 寶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經濟一說

世界原料資源再調整 再分割大會議로發展?

國際聯盟理事會는 昨年十月의聯盟總會의 決議에 基하야 世界原料資源에 [illegible] 되어 一月二十五日 右調査를 目的으로한 原料委員會의 委員을任命하얏는데 其中에는 英國으로부터 [illegible]하고 日本에도와던 리스·로스氏를 비롯하야 佛國으로부터는 佛銀副總裁 [illegible]氏等 著名한 人士가 專門委員에 任命되엇스며 日本으로부터는 最近聯盟經濟委員會委員인 伊藤[illegible]公使의 뒤를이어 委員에 任命된 外務省商務官 首藤安人氏가 專門委員에 選定되어 同氏는今月中旬頃 주네브에 [illegible]할터인바 聯盟事務局으로부터 온 報告에依하면 原料委員會는 二月下旬에開催키로될듯하다

植民地再分割、資源再調査의 問題는 一九三五年九月 米國의有名한 에드와드·하우스大佐가 「國際聯盟의必要」라고題한論文을 리바-티誌上에發表하고 世界平和確保의 見地로 植民地와資源의分布를 調整할必要가잇슴을 力說한것이 導火線인것으로 때마츰 伊太利의 에디오피아攻略中이엇던때임으로 顯著히 世界의 輿論을 喚起하고 繼續하야 同誌上에 英國元藏相 스노-덴氏와 日本의 近衛文麿公의 右論文에 對한 意見이 發表되엇다.

此等 所論이 獨伊兩國의 [illegible] 膨脹에 伴하야 人口의 處理로서의 植民地와 資源獲得에 [illegible]하고 戰爭도 辭치안는 態度에 두려움을 깨달은 聯盟理事會에서 英國의 호어外相이 「原料의 不公平한 配分이 戰爭의 原因이되는것이므로 그公平한 配分에 對하야 考究할 必要가잇다」고 述하고 昨年은 이-든外相도 이를 [illegible]하야 勤力을 앗기지안흘것을 言明하엿다 그結果 昨年 十一月의 聯盟總會決議에 基하야 今年一月의 理事會에서 原料委員會의 成立을보게되엿다

右委員會는 聯盟에 이미設置되여잇는 經濟委員會와 財政委員會에서 數名의 專門委員을 또 其他聯盟이 加盟國과 非加盟國의 [illegible] 專任한 專門家로서되어잇다 聯盟은 問題의 性質에鑑하야 聯盟外의日本、米國、伯國、[illegible]等에도 協力을 要請하엿는데 當事國이 될 獨、伊兩國으로부터 參加의 通知가 오지안헛다 그리고 各國代表는 그政府의 代表가 아니요 聯盟으로부터 指名된 個人의 資格으로 參加하기로 되엇는데 今後成行如何로서 參加할는지 모른다

委員會에는 前述한바와가티 英、佛外에 蘇聯、米國、브라질等으로부터도 專門委員이任命되여잇는바 委員會의 議事經過 如何에따라서는 資源再分割의 一大國際會議에까지發展할 可能性도업는것은아니다 聯盟事務局에서 이미 各專門委員에對하야 左의二項에 對하야 諮問을發하고잇다

一、實際上 各國이 原料取得上障害를 經驗하고잇는가

一、將來原料品 取得의 平衡에對하야 一般的 協定을 [illegible]는것의可否

日本도 獨、伊와가티 人口對策으로서의 植民地問題는 자못 [illegible]하나 今回의 委員會의 活動에對하야 [illegible]을가지고잇다 따라서 個人의資格으로 參加하는 首藤商務官도 日本의經濟上立場 即 [illegible]人口、資源、植民地等에 [illegible] 上達할뿐아니라 現在日本이 엇지하든지 貿易에 依存하지안흘수업는 事情을 說明하고 各國이日本商品에 適用하고잇는 輸入許可制、輸入配當制、爲替制限等 諸種의 通商障碍除去를 [illegible]하야 努力하리라고 한다

米買上數量決定 六十一萬四千石

其中朝鮮米十四萬三千四百石

朝鮮은漏落米七倍

政府米七十萬石買上에對하야 八日夕農林省發表에依하면

◀日本內地米 四十六萬八千七百七十六石

◀朝鮮米 十四萬三千四百七十九石

◀臺灣米 二千二百七十八石

◀合計 六十一萬四千五百三十三石

으로 朝鮮米의 申請數量은百萬石程度로 十四萬餘石에 對한七倍의數字로서 漏落米가八十三、四萬石이나된다한다

朝鮮內成績

玄米廿六萬七千叺 正租十三萬三千叺

最高 玄米 三十圓五十錢 正租 每斤에九錢

朝鮮內의 政府米買上은 八日 決定되엇는데 各地의 狀況을綜合하면 仁川의 最高價格은 玄米石 三十圓五十錢、正租斤九錢 鎭南浦의 最高正租 八錢七厘、玄米石 三十圓三十錢으로 各地의 買上決定數量은 如左하다 (單位叺)

地名	玄米	正租
釜山	三〇、四〇〇	—
麗水	—	—
木浦	二七、三〇〇	—
群山	四三、二〇〇	—
江景	七、〇〇〇	—
仁川	七七、二〇〇	五七、九五〇
鎭南浦	三一、一〇〇	七五、二〇〇
計	二六六、七五〇	一三三、一五〇
石換算	一〇六、八〇〇	三六、六七九

(玄米換算)

(合計 十四萬三千四百七十九石)

取扱所別數量과 買入受渡場所

各取扱所別 買入決定數量은 左와如하다

京城 玄米 三九、〇〇〇叺 籾 一三三、一六〇叺

釜山 玄米 三〇、四五〇叺

群山 玄米 一九七、三〇〇叺

計 玄米 二六七、七五〇叺 籾 一三三、一六〇叺

以上의買上決定 買入場所及受渡場은 左와如하다

◇買入場所

京城米穀事務所 釜山米穀出張所 群山米穀出張所

◇受渡場

京城買入分 仁川、鎭南浦 釜山買入分 釜山 群山買入分 群山、江景、木浦 麗水

府內倉庫狀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査 一月中의 京城府內倉庫貨物出入狀況은

	個數	評價額
入庫	三三、七〇四	一、〇三一、一〇三
出庫	八〇、三三八	一、七〇一、四一二
現在	一八九、九一五	三、三三八、三四〇

로前月末에比하야 三萬七千四百五十六個、三十二萬九千六百九十[illegible]

舊正金融平穩

◇…近年稀有閑散…◇

舊正도 一日밧게 안남엇는데 舊正歲末金融은 徐히 平穩狀態로 推移하야 朝鮮銀行券發行高에도 影響이잇고 二月에 入한以來 發行高도 一億八千六百萬圓臺를 維持하야 近年稀有의 閑散한 舊正決濟이라한다

南浦寄港繼續

朝郵와商船

朝鮮郵船과 大阪商船에서는每年冬期結氷期中鎭南浦寄港을 中止하얏스나 今年은 氣候溫暖하야 同港口의 流氷이적어 繼續하야 寄港하리라 한다

京城府內의工場生産額

五萬圓以下生産 中小工場七八%

五十萬圓以上僅二%

京城商工會議所 調査에 依하면 府內 各工場의 生産額에 依한 工場數를 보면 五萬圓以下의 産額을 有한 中小工場數는 總數의 七八%를 占하고 十萬圓以下 八七%、五十萬圓을 넘는것이 僅二%로 大工場이 小數임은 注目되는터이다。그러고 生産額을 區別하여보면 舊京城府內 約四四%의 四千二萬九千圓、龍山二八%의 二千五百五十四萬七千圓、永登浦一六%의 一千四百二十二萬七千圓、東部一二%의 一萬八千圓으로 이에 依하면 一工場當 産額槪算은 舊府內 四千圓、龍山八百圓 東部十一萬圓 永登浦二十九萬圓으로 永登浦는 大工場地帶로서 重要한 役割을 演하고잇슴이 明白하다

朝鮮穀物協會

近間認可할러

朝鮮의地方穀物協會를 一九○로한 財團法人朝鮮穀物協會는昨年末來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이든바 組合員의 資格에 就하야多少의 疑義가잇서 愼重硏究키爲하야 認可가 遲延되어잇섯는데大體方針을 決定하고 近間認可키로되엇다한다 從來는 仁川、群山、木浦、釜山、大邱、鎭南浦、元山의 各地方協會가 中央의會員이되엇스나 今回財團法人朝鮮穀物協會의 設立과共히 地方協會員도 中央會員이되리라한다

一月會社異動

全朝鮮의 一日中 會社異動은

스틸百弗突破

스틸株가 去四日 百弗을示現하야 一九三一年五月二十二日以來의 新高價를 보엿다함은 旣報와 갓거니와 그後 利喰賣로 少弛狀을 보이든 同株는 다시 再跳하야 昨八日에는 百一弗八分七의 新高價에로 躍進하야米國의黃金時代再來를謳歌하고잇다

對日本內地 貿易出超

=顯著히減少=

總督府發表=一月中의 朝鮮對日本內地 貿易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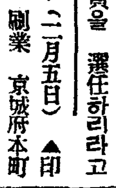
	本年一月	前年同期對比
移出	五〇、八〇〇	〈一二、二六一
移入	四六、三二九	七、〇五九
合計	九七、〇二九	五、七九八
出超	四、五七一	〈八、三二〇

(〈=減)

港別內譯은如左하야 釜山이 依然 首位를 占코잇다한다 (單位圓)

釜山	三一、五五二、	七九七
仁川	一六、一四九、	〇三八
木浦	五、九五九、	六一四
群山	五、五九八、	九三一
淸津	五、四六九、	六二三
元山	二、九四一、	六五一
雄基	二、六八五、	二三八
京城	二、三一三、	三六七
城津	一、七六八、	九〇九
馬山	一、六〇八、	八一八
平壤	八三三、	三一七
新義州	六五七、	七七四
大邱	五九二、	七二八
羅津	三八七、	七〇二
其他	一、四六六、	一四一
計	九七、〇二九、	五〇四

○貿協幹事會=朝鮮貿易協會에서는九日午後二時부터 幹事會를開하고 滿洲國輸出水産物硏究의 專門委員을 選任하리라고



(二月五日) ◀印刷業 京城府本町四丁目一五一 大京商會 金相夏

左記와갓다。(單位千圓)

	社數	公稱資本	拂込資本
◀新設	三〇社	三、八〇六	九二
◀增資	七	二、五〇〇	九〇九
◀拂込	━	━	一四四
◀減資	三	二三	一七
◀解散	━	一五〇	一三〇
◀增資	一	一、〇〇〇	一、〇〇〇

支店의分은如左하다。

手形交換에나타난 凶作의影響

京城元山만枚數、金額增加

手形交換所調査=一月中의 全朝鮮手形交換高는枚數二二三、一三〇枚 交換金額一億四千八百二十九萬七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二百五枚百二十四萬二千圓의 增加이나 이것을 各地別增減으로보면 昨年의農産凶作이如實히 手形交換에 나타낫다 即枚數로前年比減少는木浦를筆頭로 仁川、大邱、群山、南浦가 一齊히 減하얏고 交換金額으로도 釜山四五七千圓、大邱八七千圓、群山四二六千圓이 減하얏스며 枚數金額이모다 增加한것은京城 元山의兩地뿐이다

池田日銀總裁

朝鮮에서好感

日本銀行深井總裁勇退에 伴하야 池田氏의 出馬를 보게되엇는데 朝鮮의 金融界에서는 結城財政에 安定感을 與하고 日銀의大總裁復活로서 大歡迎코잇다 한다 卽某有力者는 말하되 結城藏相이 池田氏에게日銀總裁就任을 受諾케한것은 大成功이다 結城氏에 配합에 池田氏의 日銀總裁는 今後의 金融財政政策上에 큰 安定感을 與하고 諸問題는 極히 圓滑을 豫想할수잇다。近年의 日銀總裁는 日銀의 金融統制上 役割遂行에 當하야 重味를 缺하얏스나 氏의 出馬는 오래간만의 大總裁實現으로 이方面에의 好影響이 充分期待된다。結城氏에 配함에 池田氏의 配置는 日本金融界의 精通者인만콤 今後施策이安心된다云云

野心滿滿한 藤朝銀總裁이번에 日銀總裁를 은근히기대리고 못되어도 興銀總裁쯤은 바랏는데 日銀은 池田成彬氏에게 興銀은 寶來市松氏에게 總裁자리를 빼앗기엇스니 분할일

"金融機構整備는 金融機關 現狀窮塞과는 딴問題라고" 普通銀行合同論가튼것도 떠돌것이아니라"는 意見이 擡頭 吟味할일

今日의市勢 [九日]

株式 回復

鍾新筆頭

後場堅調

林內閣의 政綱政策이 發表되엇스나 何等具體策에 觸하지안코 抽象的인것에 끗첫스므로이러라할것이업서 徐히 推移를볼수밧게업거니와 外電은 一齊高인데다가 스틸株는 마츰내 百弗突破의 百一弗八分七까지 昂騰하야、米國景氣는 勿論 軍擴中心의 世界景氣의 昂揚을如實히 證明하고잇서 東新은 落의直後라고는하나 諸株는 一齊少堅裡에 하야 東新을爲始하고、그後採合商狀을 보이기는 햇스나 堅實味를 不失하야東新은百五十一圓丁으로 올린後〇二十錢에止場하엿다

後場强調

後場은 東新百五十圓九十錢 鐘新二百二十九圓丁 大新八十九圓丁等에 寄付하야 鐘新은 二百三十圓臺로 올리고 東新은 一圓臺에올려 堅强하엿다

東新의强弱觀

東新은中心한 主力株는 前週末의 暴落을 低價로하야 다시 回復步調로 轉한氣色이 엿보이는데 이에對하야 弱氣側은 一般의 東新百六十三圓六十錢으로서 天井을보이고 市勢는 完全히 戾賣라고 主張하고 强氣側은 이것으로서 中間採合으로보아 百六十三圓六十錢 그다음昨年二月의高價百六十五圓二十錢의關門을 上廻하면 再昨年의天井價百七十八圓을 上廻하야 二百圓까지간다고 豪語하고잇는데 弱氣側의 主張은 結城藏相이 健財政策을 取하야 物價抑制를 爲해서는 豫算修正도 不辭한다는 態度를取하야 物價는 漸落步調를示하고잇스므로 豫算이修正되면 自然이를려도 某程度로 收縮될것이므로 商品은 勿論株界도 惡性인플레豫想의 再飛躍은 難望일것이니 當分低落一路를 밟으리라고하는데 對하야强氣側은 豫算修正與否도 問題뿐아니라 物價騰騰의 原因도 豫算에만잇는것이아니오 物資不足에잇는것이므로 抑制도困難하며 國際情勢로보아 軍事費의 縮減이 不可能한以上 財政인플레는 根本으로 爲替인플레 經濟인플레는 不免일것이므로 軍需工業[illegible]

雜株整理場面

金鑛高의 反動低로 後退한[illegible] 金株는 積落步調이어서 帝國金은七十錢低인 四二、三三도弱지도 三十錢低인三二、五朝鮮電은 九十錢低로三三、六等이며電力株는 再次無氣力으로 大同電力이七十錢低로 一八、〇東邦電力이五十錢低로 五五、六 同新四十錢低인四八、〇이며 石油株도積弛商狀으로 日石新이四十錢低로六二、九이며北樺油도 五十錢低로 四九、二旭石油도 三十錢低로 三八、三等이며 東洋汽船도 六十錢低로 五四、五로 大體整理商面으로 보이는데 아르미物은아루미高와함께 買氣를보여 日滿아루미는 二十錢高로 七三、二同新 三四、二로 頑强한步調이며 電工新은五十錢高로 三一、八 日本曹達新은 一圓七十錢高로 三九、〇九州曹達新도 一圓高로 二八、〇電化는七十錢高同新三十錢高로 堅調이엇다

朝紡倍額增資?

朝鮮紡績에서는 朝鮮內의 人絹製織加工에 本格的으로 着手하고 多角化를計劃하는 同時에 滿洲國의 營口紡績을 傘下에두어 滿洲의紡織進出로 斷然三大紡業이되고 先驅를附하얏는바 最近同社에는 倍額增資說이 傳하다 이것은 營口紡績의 合併斷行과共히 現資本金五百萬圓全額拂込을倍大하야 約百七十萬圓의 借入金償還에 充코저하는 計畫이 進行되리라한다 이때문에 株價는 日來一擧로三、四圓이急騰이엇다

朝取證券部는 全國의第八位

昨年中取引高

總督府殖産局調査에依하면 昨年中의 全國取引所證券賣買高는 二億四千四百九十萬六千五百三株로 東京株式의 一億八百三十五萬四千二百八十二株가 全國賣買高의半數를占하야 斷然首位이오 그다음이大阪 名古屋 博多順이며 朝取本店은二百八十九萬七千三百七十株로八位인바 全國十二取引所의賣買高는 如左하다

(單位一株、括弧內는順位)

朝取本府	二、八九七、三七〇	(八)
東京株式	一〇八、三五四、二八二	(一)
名古屋株式	一六、三六二、〇〇〇	(三)
京都	三、五七〇、〇八一	(五)
大阪株式	九六、六二一、八六〇	(二)
神戶	[illegible]	(七)
廣島	[illegible]	(六)
博多	[illegible]	(四)
長崎	[illegible]	(九)
橫濱	[illegible]	(十)
新潟	[illegible]	(十一)
長岡	[illegible]	(十二)
合計	[illegible]	

國債 保合裡에 閑散

▲東京【東京電話同盟】日銀總裁更迭로 格別히 人氣를 刺戟치안코 場面도 極히 閑散하야 市勢는 保合狀態로 推移하엿는데 佛償만 五錢少高이오 第三回五分이 遞分買로二十錢低가 되엇스나 他는 變化업고 米貨債도 三、五十錢低로 一高商狀을 示하엿다

▲甲五分利 一〇〇八〇 ▲四分 一〇〇四五 ▲佛貨 一〇一九 ▲一回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 一八、〇 ▲大同產業 [illegible] ▲日本曹達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全羅鑛業新 [illegible] ▲第一回 [illegible] ▲北海曹達新 [illegible] (取引高一八〇枚)

今日財界日九

[illegible]

▲大阪 甲五分利 一〇〇三五 ▲第三五分利 一〇一九五 ▲一回四分利 一〇一九五 ▲佛貨 [illegible] ▲米貨六分半 [illegible] ▲滿洲公債 一〇〇二五

期米 反弛

少戾後에

前場少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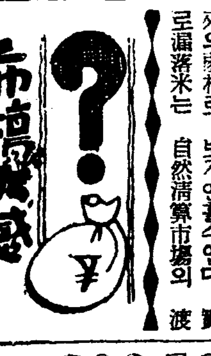
昨後場阪地二十九圓九十一錢止와共히 當市場은一二十錢에 寄합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九十錢인 一丁反落을擁하고 二十九圓九十九錢인 七丁反高를 보인後 阪地八十九錢으로 保合하여가 七節三十一圓一錢으로 十六錢까지 反騰하엿다가 八節六錢으로 結局 阪止 三十一圓九十一錢에 伴하야 다시 落하야 九十七錢에 場止하엿다

後場少堅

後場은 二十九圓九十九錢인 二丁高로 始場한後 三節三十一圓一錢에 反撥하고 五節〇一錢으로 反落하엿스나 少堅이엇다

六十萬石買上 成績意外良好

今回政府米七十萬石買上數量이 一般米界에서 決定될가하에對하야 如何히 注目을加하든바이며 市勢도多少高調의觀이 업지안헛든바 昨夕農林省發表에依하면 成績이意外에도 良好하야 日本內地米가 四十六萬八千七百七十六石 朝鮮米가十四萬三千四百七十九石 臺灣米가二千二百七十八石 合計六十一萬四千五百三十三石에達하야 七十萬石의大量買上이 거의完了되다시피되엿다 日本內地米의應募도 買上數量보다 훨씬超越한바잇거니와 朝鮮米의申請數量은 勿驚! 百萬石의程度로서 十四萬餘石에對한 七倍의數字로서 漏落米가 八十三、四萬石이나된다 要하면 買上成績의 良好는 强材로 보지안흘수업스나 압호로漏落米의 威脅이 업지안흘것을 考慮하면 一時的强材로의末來의弱材로 보지안흘수업다 實로漏落米는 自然淸算市場의 波



株……몃해전만해도 株라면 東新、大新、日産뿐인줄알엇는데 한번採算時代가되자 姓도이름도모르든 별별株가登場活躍▲이러한 無名株中에도好績의 優良株들이만허 一躍花形이되는者도 非一非再▲그러나 警戒할것은 이러한操會라서 말못되는 最下流株를不良한方法으로 宣傳하야 投資를 勸誘하고잇는것이건드릇▲投資者에는 相當한調査와 愼重한 考慮가必要……

米……今回朝鮮米의買上應募는 百餘萬石으로 決定된數量은十四萬三千餘石밧게아니되니 漏落米가 七倍以上이걸 ▲그漏落米가 又回買上을 發表하기까지非賣同이되고 말시又는 淸算의 渡米用으로 集中될지此가今後의 注目꺼리 ▲何如間市場으로 流出하기가 十常八九이어서 今日의强材가後日의 弱材化?▲그러면今日의强을마지하게되엿스니 압호로는日氣로漸漸漏甩하여질모양이며 硬하든强家의 態度도漸次緩和하렷다그러면 春間一落도可期

間接的政策과 買上後의米價

米化하기가 十六八九일것이므로 「모도리」가되라 [illegible] 지안흘가한다 [illegible] 數量은二十八萬[illegible] 加할모양으로 [illegible] 買出現할것이라고[illegible] 는弱氣說도 [illegible] 으로는 米價의低落을 防止하는政府米買上도 決定發表한後임으로 [illegible] 材一巡의觀이 업지아니하다 그러나 二百萬石買上할것이 [illegible] 了되엿다할수잇슴으로 [illegible] 持久戰으로[illegible] 되는다 [illegible]直接으로 米價의 [illegible] 自動의 行動을 [illegible] 本月의 高價는春間의 天井으로 보지안흘수업다고云云 果如何?

仁川在米增加

一月六日現在 仁川在庫米는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九、七七〇叺의 增加를示하엿는데 在庫品을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 六七、八〇三叺 ▲白米三斗入 七、九〇二叺 ▲白米二十키로入 一、〇〇〇俵 ▲玄米 九六〇叺 ▲正租叺入 一七四、五五八叺 ▲正租叺入 一九四叺 ▲小豆 三、四九二叺 ▲大麥(白) 三、七六八俵 ▲大豆 四六三、九六叺 ▲小麥 二、九四〇叺 (裸)六、八五〇叺 ▲俵入(白) 五〇〇 ▲小麥 一、三二一叺 一、七八四俵 ▲粟 九八叺 ▲粉米 一八〇叺 ▲胡麻 五〇俵 ▲黍 三、三七四叺 ▲綠豆 二五〇叺 ▲蕎麥 二〇〇叺 ▲精米 一、六五〇叺 (合九) 九八八五俵 ▲台玄 九八〇袋 ▲雜穀米一、三五三袋

正米 反撥

買上好績

京城反撥

買上好成績과 定期高로 氣配二十錢 反撥이엇다 ⓔ二等三〇、〇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强調

市中實物不足과 産地의 高値로 [illegible] 實物强調를 示하고잇다 市況은 자못 强調를 示하고잇다 ⓔ二等三〇、〇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二二、二五 四二〇、二五

釜山閑散

買上好成績으로 定期는 回復步調이나 日本內地米買付不振으로 市況은 沈衰하야 當用以外는 買出도 不變인데 實需는 依然 不振하고 當用必需側小口로 市場은 不變인데 閑散이엇다 ⓔ二等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三三、九〇

大邱回復

政府米의 好價買上으로 人氣回復氣味이며 兼하야 期米高로 十錢高唱이 되엇스나 淸米의 市場流出을 念慮하야 買付는 자못消極的이다 ⓔ二等三〇、一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三三、一〇

群山昂騰

政府의 好價買上과 定期高로 當用側과 一部思惑側의 買氣를 誘導하야 氣配一躍에 四十錢의 昂騰을 告하엿다 所持側의 態度는 崩潰을 示하고잇다 ⓔ二等三〇、一〇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三三、七〇

木浦堅調

日本內地의 買氣는 不添이나 買上成績良好와 定期의 回復人氣에 氣配十錢高唱이되엇다 그러나 實買는 活潑치못하다 ⓔ二等三〇、四〇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三三、〇

海外經濟 八日

[illegible]

鰮油粕·蔘粉

◆阪神鰮粕◆ ◆阪神鰮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銀行券 八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限 九、一〇〇 中限 一二、九〇〇 先限 三二、〇〇〇 取組高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計 八、〇〇〇、[illegible]石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石)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長期◆ ◆大阪短期賣買◆ ◆短期主要株賣買◆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金銀賣買會社 金 銀 金土金石 分析買賣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訂正謹告 去日本府瑞蘭三十一日、二月二日、七日城門에揭載一一蟒嶋石廣告中「七」番地電話番號光化門의誤植이오니 右와如히訂正함

康益商店 米 株 京城 仁川 金益證券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期米

東亞證券 株式 賣買 京城黃金町